금주의 법구–〈잡보장경〉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해 비겁하지 말고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8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2월 24일)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코로나가 던진 화두 "멈추며 돌아봅시다"

불교환경연대 등 '멈추며 돌아보기' 캠페인



'멈추고 돌아보기' 캠페인 제안문

-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멈추고 고요한 시간으로 가져봅니다.
- **우리는 너무 혼자만 생각했습니다.**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 **우리는 너무 인간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생명과 자연,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 **우리는 너무 물질만 생각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이 소중한 것임을 생각해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웃 · 환경 · 생명 등 수행주제
개인 · 공동체의 삶 되돌아보기
모임 자제 및 외출 최소화 제안

자비명상 '마음마스크' 채팅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삼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자가격리의 시간을 성찰로 보내자는 캠페인이 등장했다.

사찰 법회 등이 중단되고 개인 수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교계에서 성찰 운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공포를 덜고,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자는 차원에서 '멈추며 돌아보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멈추며 돌아보기' 운동은 2주간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자기 돌아보기, 현재 돌아보기, 상황 돌아보기, 지구와 기후의 미래를 돌아보기, 생명을 돌아보기, 넓어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고요한 시간을 갖기 등의 개인점검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구체적으로 멈추며 돌아보기 캠페인 운동 △3월 한 달간 20분씩 나를 돌아보는 고요한 시간(기도)을 갖기 △고통받는 이웃과 생명을 생각하며 마음을 모으는 시간(기도) 갖기 △부정적이고 차가운 언어를 삼가기 △국내 · 국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모금에 동참하기 △모임 자제, 외출 최소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운동을 제안한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보면서 보다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다. 우선 우리가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관계맺고 연결되어있는 의존적 관계인가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동안 우리가 느끼지 못한 다양한 생존 위험요소들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기후변화만 해도 10년이 지나면 돌이키기 어렵다.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잠식되고 점점 인간과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겹치며 인수공통의 질병도 증가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사회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만 주목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지구와 기후의 미래를 돌아보고, 생명을 돌아보는 고요한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교환경연대 외에도 불교계에서는 성찰의 시간을 갖자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멘토 혜민 스님은 최근 '코끼리' 명상 앱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의 심리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의 마가 스님도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마음마스크' 21일 정진을 시작했다. 이 정진은 보배경 독송과 함께 모든 존재들의 안녕을 위하 기도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수행으로 오픈채팅방 '마음마스크19' 등을 통해 스님이 직접 신행상담을 해준다.

마가 스님은 "우리는 모두 연기법에 따라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로 인한 아픔의 시간를 우리가 성숙해지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한다"며 "불교계에서도 그동안 외형적으로 확대해오던 움직임을 돌아보고 불자들의 신심을 높이고 불교만의 사람과 뭇 중생을 향한 실천을 되새기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 수행일기 2면〉



3월 10일 서울 인사동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사찰음식 도시락을 만드는 스님과 불자들. 사진=박재완 기자

사찰음식, 격무 의료진 위로하다

문화사업단 29일까지 도시락 선별진료소 지원

코로나19 여파로 3월 29일까지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을 중단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서울지역 선별진료소 9곳에 의료진을 위한 사찰음식 도시락을 지원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3월 10일 '희망나눔 사찰음식 도시락' 100개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원했다. 사찰음식 도시락은 현재 24시간 근무로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3월 28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9곳의 선별진료소에 전달된다.

도시락은 밥과 국, 반찬 3종, 사찰김치, 장아찌, 과일, 생수 등으로 구성됐으며, 동원 스님을 비롯한 사찰음식 전문가 스님들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팀이 인사동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서 조리를 맡았다. 첫 도시락은 잡곡밥, 채개장, 버섯강정, 더덕초무침, 머위두부무침, 파래김자반, 김치, 과일이 담겼다.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전달식에서 단장 원경 스님은 "의료진을 위해 사찰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건강한 사찰음식으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혜숙 법우회장(영상의학과 방사선사)은 "의료진이 사찰음식으로 위로받고 힘을 내 이번 위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며 "불교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줘서 고맙다.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힘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화합으로 국난 극복"

원행 스님 명의 담화문 발표
"정부 믿고 예방수칙 준수를"

"천만불자의 마음을 모아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 그리고 병마로 힘든 싸움을 이어기고 있는 모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올리고 있는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했다.

원행 스님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총무부장 금곡 스님이 대독한 담화문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불안과 공포, 혐오를 벗고 재난을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시비와 갈등을 멈추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해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인 재해대책본부와 일선 의료현장에서 감염의 위험을 감내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믿고 개인 예방수칙을 준수한다면 오래지 않아 위기상황은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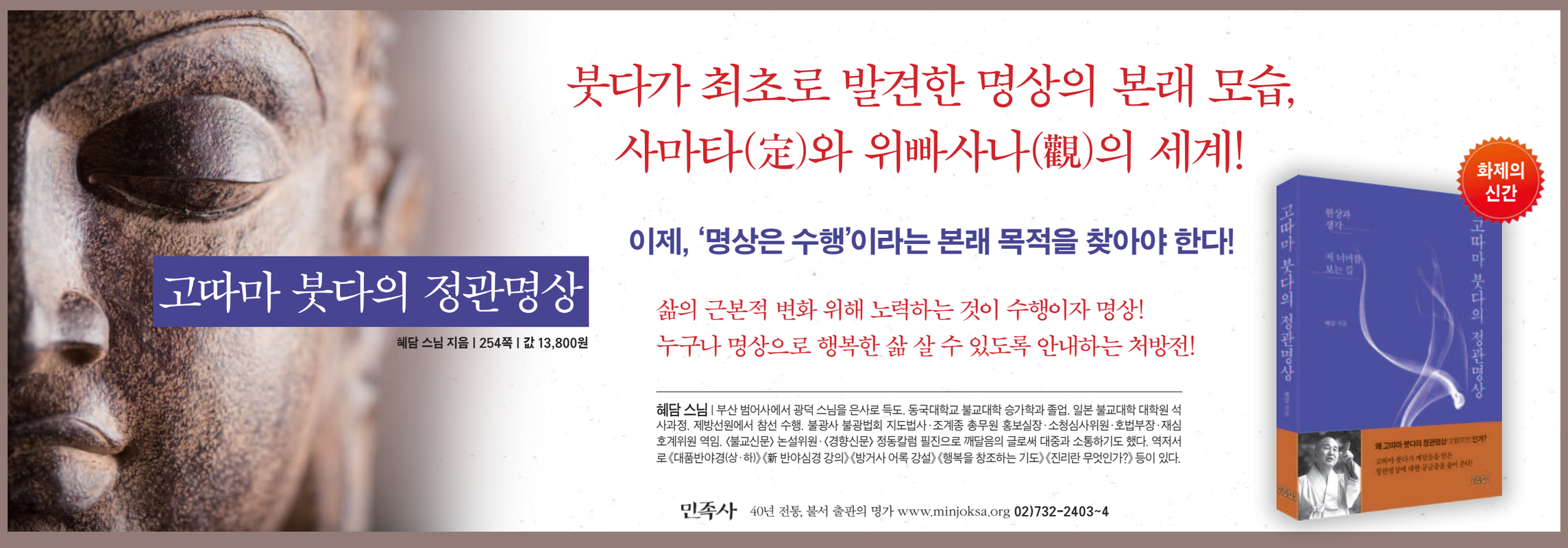
종도와 신도들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기도와 시주로 운영되는 사찰 특성상 법회 중단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밝힌 원행 스님은 "사찰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종단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는 스님과 신도들께 감사하다"며 "신도들께서는 법회와 신행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해도 가정에서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보는 정진의 시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원행 스님은 "(재)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주민을 위한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대구 ·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역 주민을 위한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서는 향후 의료진을 비롯한 방역관계자를 위한 공익 템플스테이를 준비해 생사의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의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알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4개 면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꽃 시장 암흑기, 기도로 마음 다잡죠”

코로나19, 수행으로 극복
윤태연 모란꽃집 대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산업이 한두 곳은 아니다. 그 가운데 심각한 곳은 화훼 산업이다. 지금쯤이면 졸업과 입학으로 성황을 이루며 북적거려야할 꽃 시장은 절망 그 자체다. 그 많던 꽃들은 버려지고 상인들은 대부분 울상이다. 부산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표 꽃시장, 부산 범일동 중앙시장에서 상인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기도로 다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 윤태연(85) 모란꽃집 대표다.

2월 중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지 않았을 때 시장은 활기찬 분위기로 다가올 바쁜 시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학교 졸업식이 취소되고, 입학은 연기돼 꽃 시장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어두워졌다. 윤 대표 역시 코로나19 소식을 뉴스에서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윤 대표는 매일 기도 수행을 이어왔지만 함께 일하는 주변 상인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괴로워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뉴스를 보면서 일주일 정도는 마음을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젊은 상인들의 우울한 낯빛, 활기가 사라진 시장 분위기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이래선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다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윤 대표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천수경과 반야심경, 예불로 시작하며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평소에 하던 기도 내용과는 많이 달랐다. 코로나19 극복으로 좁게는 꽃 시장이, 넓게는 나라가 안정을 찾기를 기원하며 세계와 한국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바뀌었다.

> **직격탄 맞은 화훼 산업 속**
> **기도 통해 바른 마음 얻어**
> **절망하는 상인에게 안정감**
> **축원 기도 대상 폭 넓어져**

기도를 마친 윤 대표는 활력을 잃은 시장을 매일 찾아가고 있다. 시장을 찾기 전 항상 들리는 미소원 법당에서 짧은 기도를 잊지 않는다. 그곳에서도 모든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다함께 모여 진행하는 기도와 법회가 사라져 아쉽지만 관세음보살에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쉬지 않았다.

기도 후 시장을 찾은 윤 대표는 손님이 있든 없든 자리를 지키며 사경을 하고 마음을 다잡는다. 다라니와 광명진언을 주로 사경하고 그동안 일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경전을 찾아 사경으로 내용을 깊이 파악했다. 걱정만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각오였다. 윤 대표는 기도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도는 바른 방향으로 함께하는 의지도 포함합니다. 매일 부처님께 기도하고 나 자신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것은 주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의 힘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것을 뛰어넘어 바른 마음의 자세를 일러주는 지침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 때문인지 꽃 상가에서 일하는 상인들은 윤 대표를 찾는다. 작은 의논에서 큰 주제까지 힘든 일을 의논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 모든 인연이 행복하길 바라는 기도의 에너지가 윤 대표를 미소 짓게 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일과를 마무리하며 윤 대표는 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마지막 수행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워 몽수경을 독송하는 것이다.

“조념관세음 모념관세음 념념종심기(朝念觀世音 暮念觀世音 念念從心起), 아침에도 저녁에도 생각마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길, 세계가 평화롭길, 이 모든 것이 잘 지나가길.”

이른 아침부터 기도 수행으로 시작한 윤 대표의 하루는 오늘도 기도수행으로 끝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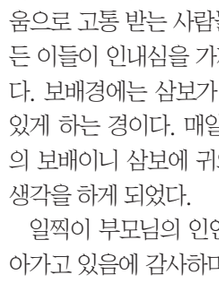


윤태연 모란꽃집 대표는 매일 새벽 5시부터 기도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커지면서 그의 기도 내용은 꽃 시장부터 국민, 세계가 안정되길 바라는 서원으로 바뀌었다.

멈추며 돌아보기 동참후기

“감사의 마음 샘솟아”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정반대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혐오와 분노로 분열의 차가움을 내뿜는다. 또 어떤 사람은 자비와 베풂으로 나눔의 온기를 내보낸다. 전자는 혼란과 불안을 키우지만 후자는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준다.

불교환경연대의 ‘멈추고 돌아보기’ 캠페인은 위기에 닥친 우리 사회에 따뜻함의 온기를 키우고자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지금, 스스로 자발적인 격리를 하며 밖으로 향하던 마음을 안으로 돌려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바쁘게 살아왔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 또 인간이 아닌 존재들, 산과 강과 바다와 하늘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곳에 깃든 생명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다.

본부 유정길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광주전남과 울산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모금과 기도까지 이어졌다. 나는 매일 하던 천수경 독송과 일상 발원문 대신 천수경과 이번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발원문으로 기도를 바꾸어 했다. 보배경은 입에 붙은 대승경전과 달리 번역이 어색한 초기경전이라 처음에는 낯선감이 있었지만, 매일 보배경을 읽으며 부처님께서 몸소 먼 길을 걸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 곁에서 위로하고 위신력으로 구제하신 모습을 생각하며 나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인연 있는 곳에서 모금을 한다고 하면 소액이라도 기꺼이 동참을 하고 부족한 마스크를 양보하기 위해 구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애쓰는 의료진이나 공무원들, 환자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 등 모든 이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기를 기원했다. 보배경에는 삼보가 얼마나 고귀한 보배인지를 거듭 알 수 있게 하는 경이다. 매일 보배경을 읽으며 삼보야말로 보배 중의 보배이니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찍이 부모님의 인연으로 불자가 되어 지금까지 불자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의 따뜻한 자비심으로 삼보에 귀의하고 진실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금 발원한다.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 공고

본 종의 승적을 취적한 모든 승려는 승려법 및 승려분한신고시행령에 의거하여 10년 주기로 분한신고를 하여 출가독신으로 청정한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 및 청규를 지키는 승려임을 확인하여야 하오니 다음과 같이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단은 스님들께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승려복지법에 의거하여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정기분한신고 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같이 제출 받습니다.

– 다 음 –

●신고기간 : **불기2564(2020)년 2월 3일(음 1.10) ~ 4월 30일(음 4.8)**

●신고대상 :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모든 승려**

●신고서류

가. **내국인 및 외국영주권자(대한민국 국적자)**

1) 분한신고서(소정양식) …… 1부
2) 신상명세서(소정양식) …… 1부
3) 자필유언장(인감날인)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 1부
4) 인감증명서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주민센터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5) 기본증명서(상세본)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8) 주민등록 초본(모든변동사항 포함)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9) 주민등록 등본(모든변동사항 포함)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10)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1가지) … 1부
※신분증의 증명사진은 승복을 착용해야 함
11) 현 승려증(분실인 경우 분실명기)
12) 구비서류 부착 외 별도 증명사진(3㎝×4㎝) …… 3매
※촬영한지 3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삭발염의 필할 것
–구족계 수지자(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사미계 수지자(만의/장삼 수한 사진)
13)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 1부
14)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소정양식) …… 1부

나. **외국인 및 외국국적취득자 또는 시민권자**

1) 분한신고서(소정양식) …… 1부
2) 신상명세서(소정양식) …… 1부
3) 자필유언장(본인서명)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 1부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주민센터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5)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기간만료 전) …… 1부
6) 현 승려증(분실인 경우 분실명기)
7) 구비서류 부착 외 별도 증명사진(3㎝×4㎝) …… 3매
※촬영한지 3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삭발염의 필할 것
–구족계 수지자(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사미계 수지자(만의/장삼 수한 사진)
8)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 1부
9)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소정양식) …… 1부

●**승적말소자·직권제적자 분한신고 시 추가 제출서류**
2010년 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승적말소자** 및 2회 이상 분한미필로 인한 **직권제적자**는 별도의 교구심사를 거쳐 총무원에 상신하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1) 분한신고미필사유서(소정양식) …… 1부
2) 사찰거주확인서(소정양식) …… 1부
3) 10명 이상의 은사 또는 사형사제, 도반등의 수행확인서(소정양식) …… 1부
4) 승납재기산 동의각서(소정양식) …… 1부
5) 제적등본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제적등본은 출가년도 이후 분가로 인한 독호적, 호주승계, 본적지 변경 등에 의해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변동 전 제적등본을 추가 제출해야함

●**서류접수처** : 신고인의 **재적교구본사**에 분한신고서류를 접수함
(재적교구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 직할교구사무처에 접수)

●분한신고 수수료
1) 2010년도 분한신고를 필한 승려 : **없음**
2) 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승적말소자 및 직권제적자 : **10만원**
※수수료는 재적교구본사로 납부함

●주의사항
1) **신고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승려자격에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승려법 제34조의 7(분한심사의 처리) 제1항에 의거하여 승적을 자동 말소합니다.**
2) 승적 말소란 본 종 승려로서의 모든 권리를 제한함을 뜻합니다.
3) 모든 작성서류 및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및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시 종법에 의거하여 승려로서의 권리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분한신고 양식 다운로드
조계종홈페이지(www.buddhism.or.kr.) → 공지사항 →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공고’ 참고

●문의처
각 교구본사 종무소
직할교구사무처 02)2011-1930~1932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 02)2011-1703~1705

불기2564(2020)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시행 공고

■2011년도 제정된 승려복지법에 의해 시작된 승려복지제도가 2020년 올해 10년차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종단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시는 스님들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과 함께 요양비, 국민연금보험료, 정밀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약 2,600여명의 스님들께 11억여 원 이상을 지원해 드렸고, 이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제도 운영과 보다 많은 스님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를 시행하오니, 승려분한신고 서류와 함께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근거종법 : 승려복지법

●납부대상 :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승려

●납부금액 : 월 10,000원
(단, 구족계 수지한지 5년 이하인 승려는 월 5,000원)

●납부개시 : 2020년 7월부터(사전 선납 가능함)

●납부방법 : 계좌이체
(소정양식의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신청서** 작성)

▫CMS(자동이체 : 승려복지회에서 7월에 출금 등록)

▫계좌이체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
국민 023501-04-262677, 농협 301-0262-9883-41
예금주 :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계좌이체 시 반드시 입금하시는 스님의 법명과 성명을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2020년도 **승려분한신고 서류와 함께 제출**

●소정양식 : 조계종 홈페이지(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공고 참고)

문의 : 총무원 승려복지회 02-2011-1726~7, 010-2926-1726

불기2564(2020)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법회 생중계 등 실시간 불교, 이제 시작”

봉은사 출가열반 회향기도 현장

카메라 · 스마트폰 활용
저비용 생중계 시작해
실시간 소통의 새 시작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 왼쪽부터 출가열반기도 회향법회 생중계를 하는 모습과 이를 촬영하는 기획국 종무원들의 모습. 사진 오른쪽은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제환 스님.

“그동안 법회 생중계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불교계에서 코로나 사태로 하나의 큰 흐름이 만들어진 듯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교계가 일요법회 등 각종 기도법회를 중단한 가운데, 서울 강남의 봉은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법회 실시간 중계를 시작해 눈길을 끈다.

출가 열반기도 회향일이었던 3월 9일, 신도들의 각 가정에서의 기도가 이어진 봉은사에는 한적함이 감돌았다. 회향기도가 진행되는 텅빈 봉은사 법왕루에서는 카메라와 연결된 스마트폰을 연신 조정하는 한 스님의 모습이 띄었다.

바로 기획국장 제환 스님이었다. 봉은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찰 기도가 중단된 3월 2일부터 전격적으로 기도법회를 유튜브를 통해 중계를 시작했다. 신도들의 사찰 방문은 줄었지만 기도는 계속됐다. 스님들은 저마다 마스크를 끼고 기도와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사찰에서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협조를 얻어야만 했다. 최근 유튜버, 아프리카BJ들의 개인 생방송을 축으로 하는 미디어 변화는 불교계에서 더디기만 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찰의 변화가 시작됐다.

봉은사는 그동안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과 홈페이지 내 커뮤니티 구축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런 와중에 실시간 생중계 필요성이 높아지자 발빠르게 장비를 구축해 시작했다.

효과는 나오고 있다. 이날 생중계를 유튜브를 통해 지켜본 이들은 동시접속은 200여 명, 누적 접속자는 2000여 명이 넘었다.

사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불교계 방송사를 통해서만 지켜볼 수 있었던 사찰의 모습을 직접 보는 이들이 상당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채팅도 함께 올라왔다. ‘마스크를 끼고 기도 하시는 스님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고맙기도 하네요.’ ‘코로나 사태가 얼른 끝나서 법당에 나가고 싶습니다’ 등의 댓글이 계속 올라왔다.

봉은사의 이번 생중계는 평소 유튜브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관심이 많았던 주지 원명 스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자비로 DLSR카메라와 짐벌, 캡쳐보드 등 장비를 구입해 영상 중계를 시작한 사중 스님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있어 가능했다.

영상 촬영은 처음이라는 기획국장 제환 스님은 스님들의 IT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의 관심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아도, 막상 시작하려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란 머뭇거림이 있기 마련인데 일단 시작하는게 중요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생중계 접속 빈도를 보면 3040세대의 접속율이 높다. 젊은 신도들을 중심으로 사찰신도 유입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봉은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에서는 유튜브 생중계가 시작됐다. 부산 홍법사를 비롯해 합천 해인사 등도 ‘화엄 21천도 법회’를 생중계 시작했으며, 불자들이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사찰에 오지 못하는 불자님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행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저마다 상황에 맞게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기도 발원하자”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극복’ 불교계 자비행 뜨겁다

조계종 감로수 20만개
대구 · 경북 지원

전국비구니회 ‘藥김치’ 전달
BBS · BTN 기금 모금 생방송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교계의 자비행 열기가 뜨겁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12일 대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종단 브랜드 생수 감로수(500㎖) 20만개(1억 3000만원 상당)를 대구 · 경북 지역에 전달했다.

생수 20만개는 경북도청 · 대구 수성구청 · 중구청 · 남구청 · 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서부경찰서 · 소방서 · 대구의료원 등 일선 현장에 배분됐다.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종단 브랜드 생수 감로수를 지원하게 됐다”면서 “부처님 가피가 담긴 맑은 물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들이 병마와 싸워 이기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3월 9일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에 ‘약김치’를 전달했다.

이날 전국비구니회가 전달한 김치는 총각무김치 100인분, 깍두기 100인분, 물김치 66인분으로 사찰음식연구소장 선재 스님이 직접 제작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마음과 정성으로 만든 김치가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잘 전달돼서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불교계 방송들은 특별 방송을 대거 편성했다. BBS불교방송(사장 이선재, 이하 BBS)는 3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코로나19 극복 발원 특별 라디오 생방송 ‘아름다운 보시’를 진행했다. 방송에서는 소외계층과 의료진 지원을 위한 특별 모금이 이뤄졌으며, 전국 지방사와 대구 경북 부산의 주요 사찰을 연결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피해 상황을 다뤘다.

BTN(대표이사 구본일)은 3월 9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심법문(安心法門)’ 방송을 시작했다. 안심법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국민들과 불자들을 위해 마련된 특집프로그램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차례 방송된다.

이와 함께 개학을 맞은 종립학교들은 원격강의 실시 등 코로나19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강 후 2주간 실시간 원격수업을 시행한다.

동국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강일을 2주간 연기했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오는 3월 16일 개강 후부터 3월 28일(토)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기존 녹화 강의 중심의 온라인 강의는 단방향인 반면, 이번에 실시하는 온라인 원격수업은 쌍방향으로 자료공유, 판서, 동영상 재생, 채팅, 퀴즈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업의 몰입도가 높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진흥원 불교장학금 및 수행프로그램 공모

장학금 5월 15일까지 접수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해 ‘불교 장학금 및 활동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진흥원은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라는 재단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불교진흥과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과 불교동아리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개인은 중, 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며, 단체는 초 · 중 · 고 및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불교동아리다.

개인은 중 · 고등학생에 50만원,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300만원이 지원된다. 단체는 초등학생 불교동아리 50만원, 중 · 고등학생 불교동아리 및 대학생 · 대학원생 불교동아리 100만원이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마포 다보빌딩 15층 진흥원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불교학술 및 콘텐츠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지원분야는 불교학술 및 불교콘텐츠 개발 분야로 저서, 번역서 및 만화, 동화, 수행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지원금은 한 주제당 500만원부터 1500만원이다. (02)719-2606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 알리는 지도사 과정 개강

부산불교교육대학, 4월부터 ‘불교문화전문지도사’ 운영

불교문화는 아름다움과 그 가치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한다. 불교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포교에 앞장서는 ‘불교문화전문지도사’ 과정이 부산에 신설된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2020년 신입생 모집에서 ‘제1기 불교문화전문지도사’ 자격과정을 열고 전문지도사를 양성한다. 불교문화전문지도사는 말 그대로 전문가 과정이다. 우선 부산불교대학에서 진행하는 불교문화학과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불교문화학과 수료생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강의는 6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해 4월 2일 개강할 예정이다. 불교문화전문지도사 과정에 등록하려면 입학금 5만원, 수업료는 매달 5만원이다. 또 수료 후에는 불교문화전문지도사 민간자격증 시험에 도전할 수 있다. 응시료는 5만원이다. 등록은 코로나19 사태로 개강 일시가 유동적이라 4월 말까지 가능하다. (051)711-070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폐렴균, 대장균을 99.9% 정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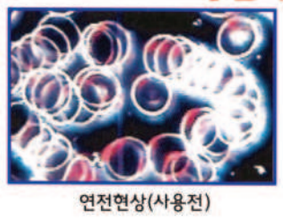
폐렴균과 대장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양치 후 뱉어 내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폐렴균을 99.9% 정균 감소시키며, 폐렴 예방은 물론 퇴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장균을 99.9% 정균 감소시키는 ORAL MATE®치약은 **식중독** 및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과식**이나 **과음**으로 속이 불편할 때, **취기**가 올 때 양치 후 뱉어 내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속이 빨리 편안해지고 술도 빨리 깨며, 정신이 맑아집니다. **잇몸이 약하고 아플 때, 이가 시릴 때,** 아픈 부위에 ORAL MATE®치약을 발라주면 통증이 그냥 사라집니다.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없을 정도로 잇몸이 튼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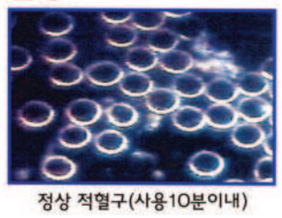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

포도상구균(화농성 세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않고 거품으로 마사지 하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 보습과 투명피부의 효과**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으며 특히 영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 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과 다리에 쥐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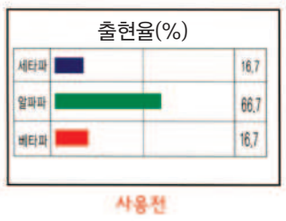
보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 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개발자 체험담

-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로 고생했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하여 감기를 잊어버린(나은) 경험.
- 비염, 축농증으로 코막힘이 심하고 누런 콧물이 자주 나왔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한 후부터는 코가 뻥 뚫리고 누런 콧물이 없어졌다.
-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눈동자를 마사지하고 나서부터는 안경을 써야 볼 수 있던 신문을 안경 없이 볼 수 있고 눈동자에 힘이 생겼다.
-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ORAL MATE®(치약)을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삼켰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고 이틀에 한 번씩의 샤워로 6년 동안 감기, 몸살을 앓아 누워본 적 없다.
- 잇몸이 아프거나 이가 시릴 때에는 ORAL MATE®(치약)을 부위에 발라주면 통증이 그냥 없어진다.

BLOOD MATE® 강비누: 25,000원 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 15,000원 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 21,000원 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는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 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현불 논단

숨지 말고 강해지자



송마나
작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혼란'
근래 호흡기 전염병 극성 부려
코로나 바이러스 동물서 유래돼
열악한 환경서 집단 사육해왔던
인간 탐욕에 의해 기인한 문제
이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때
환자 대한 혐오 · 차별 도움 안돼
독화살 독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삶이란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다. 인간은 가슴 가득 공기를 들여 마시고 밖으로 길게 뱉어내는 호흡을 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얼굴 가운데 우뚝 선 코는 어떤 매개물도 거치지 않고 외부와 바로 통한다. 호흡은 인간과 우주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생명선이다.

그런데 근래에 마스크 없이는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력 때문이다. 우리는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에 귀를 기울이고 긴급재난문자를 들여다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불안이 증폭되어 간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80~20nm의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 하기야 바이러스가 오죽 강력하면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CORONA)'란 이름을 얻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21세기로 들어서면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2002년 사스(SARS,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와 2012년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는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각 700명이 넘는 사망자를 속출했다. 특히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맹위를 떨쳐나가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모두 동물에게서 유래한 바이러스가 병원체다. 박쥐, 사향고양이, 낙타 등에서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숙주를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옮긴 것이다.

어쩌면 이런 상황은 예견되었는지도 모른다. 바이러스가 숙주로 삼아왔던 동물들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인간들이 동물들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집단으로 사육하면서 바이러스는 그 안에서 똬리를 틀며 계속 변이를 일으켰을 것이다. 동물과 인간의 거리가 급격하게 가까워진 탓에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호흡기를 공략하여,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글로벌한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사투가 조만간에 끝나리라고 확신하지만 이번 전염병이 마지막이 아니리라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이 급선무다. 부처님이 〈아함경〉에서 독화살의 비유를 설법하셨듯이, 화살을 쏜 사람에 대한 정보와 화살의 종류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당장 화살 맞은 자의 화살을 뽑고 독을 치료하여 목숨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누구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시대적 존재이며 사랑의 존재다. 사회적 재난을 외면하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지킬 수 없다.

이웃과 나는 우주적인 공기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 내 이웃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면 그것이 곧 내 삶마저도 바꿀 것이다. 우리는 이 재난 속으로 숨지 말고 강해져야 한다. 강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그들 역시 가족과 격리되어 불안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당국과 의료진의 처방을 따라줘야 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대구로 달려가 분투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자원 봉사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아야겠다.

제주도에 진달래꽃이 피었다고 한다. 우리 속히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꽃놀이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자.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현대적 '일상 언어'로 설법하라

〈잡아함경〉 45권 '구담미경'에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런 이야기가 있다. 그 비극의 주인공은 키사고타미 비구니이다. 출가 전에 외아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과부였는데, 아들이 그만 병들어 죽고 말았다. 여인은 슬픔에 젖어 며칠을 눈물로 보냈다.

부처님이 여인의 사연을 듣고 위로하기 위하여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부처님은 말했다.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래도 죽은 아들을 살리고 싶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서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얻어오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인은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서야 여인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죽음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니 고통이 반으로 줄었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기독교의 성경 '누가복음 7장'에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다'는 이와 비슷한 일화가 나온다. 여인의 외아들이 죽은 똑같은 사실인데 부처님과 예수님의 해결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 "여인아, 울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주마.",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였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실이 각자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모양도 다르고 가치 평가도 다르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마음은 사물을 인식하는 주체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정관념(相)이 형성되고, 그 거울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본다. 그것이 내가 만들어 낸 세계이고 우주이다. 태평양 원주민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도 천당도 극락도 없다.

〈모든 번뇌의 경(맛지마니까야)〉에서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치에 맞는 올바른 생각을 하면 괴로움은 없다"고 하였다.

우리가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제를 냉철하게 관찰하여 고통의 실상(實相)을 사실대로 이해하고, 그릇되게 인식한 허상(객진번뇌)을 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아인슈타인은 "종교적 진리(교리)가 이치에 맞아야 하고, 과학적 진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대과학의 요구에 부합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밖에 없다"고 하였다.

부처님은 '전법선언'에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이치에 맞고 의미를 갖추어 설법하라"고 하였다. 법사는 설법의 주제와 내용이 논리적이고 이치에 합당하도록 설해야 한다.

언어문자는 인간의 약속된 부호이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수단인 언어문자가 중심이다. 인간의 사유도 언어문자를 통해서 한다. 불교의 교리를 청법 대중에게 이해시키려면 불교의 전문용어를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고, 어법에 맞는 쉬운 일상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는 복잡한 말과 비논리적인 말을 심리적으로 거부한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코로나19 재난, 성찰의 시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단체의 캠페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의 '멈추며 돌아보기' 캠페인이다. '멈추며 돌아보기' 캠페인은 2주간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자기 돌아보기 △현재 돌아보기 △상황 돌아보기 △지구와 기후의 미래를 돌아보기 △생명을 돌아보기 △넓어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고요한 시간을 갖기 등의 개인 점검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불교환경연대 외에도 불교계에서는 '성찰의 시간을 갖자'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멘토 혜민 스님은 최근 '코끼리' 명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의 심리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의 마가 스님도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마음마스크' 21일 정진을 시작했다. 이 정진은 보배경 독송과 함께 모든 존재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수행으로 오픈채팅방 '마음마스크19' 등을 통해 스님이 직접 신행상담을 해준다고 한다.

사실 한국사회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정신적으로 많이 침잠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차분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항상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기에 치중했던 지난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다잡아보자. 성찰은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다.

온라인 신행 생태계 구축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신행활동이 불교계 안팎에 새로운 파장을 낳고 있다. 온라인 법회와 기도는 불자들에게 새로운 종교활동이자 신행생활로 신선함을 주기도 하지만 기존 신행생활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찰에서 진행하는 유튜브 생중계를 비롯하여 SNS를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신행활동이 나오고 있다.

이는 불교계 최초로 신행활동의 온라인 전환을 의미한다. 그동안 보조역할에 머물렀던 온라인 신행이 2~3주간 이어지고 오프라인 신행활동보다 중요하게 떠오르며 그동안 특정시간과 공간에 모여야 하는 일반적인 신행활동에 대한 일종의 화두까지 주고 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이러한 화두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이유다. 언제 어디서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온라인 신행 확산은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교계의 다양한 개발과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스님들부터 불교 IT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을 높여야 한다. 적극적인 IT기술 활용을 통해 사찰 신행과 재정에 두루 도움이 되는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불교페스티벌이 온라인 상에서 펼쳐져 화제를 모았다. 그동안 오프라인 강연 중심에서 온라인 강연회와 소통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온라인 상에서의 신도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증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신행활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미디어 변화로 시작된 불교 전법 포교의 새로운 장은 이제 신행생활까지 온라인과 미디어 결합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 사태의 새로운 화두는 '불교IT'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0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점심제공〉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200, 010-8779-6926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주 관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자기 마음 바로 보고 치유하기
▶가정, 사회에서 갈등 지혜롭게 해결하기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1일차 (5월 20일 수) 마음치유와 수행
2일차 (5월 21일 목)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2일차 (5월 21일 목) 현대인을 위한 포교
1일차 (5월 20일 수) 현대인의 마음공부
2일차 (5월 21일 목) 내 마음의 용광로
3일차 (5월 22일 금) 의식에 관한 통찰과 마음공부, 그리고 사찰발전을 위한 실제적 적용방안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한마음 공생실천과정 나로부터의 시작
제33기 모집
내 앞에 닥치는 일들을 한마음으로 굴려 놓아 원만하게 풀어나가며, 자신의 근본을 탐구하여 자성을 밝혀 나가는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대 상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일 정 2020년 3월 28일(토) ~ 5월 30일(토) 총10주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장 소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3층)
모집인원 총50명(선착순 모집)
수 강 료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또는 직접 방문 접수 (네이버에서 '함께하는 진화'를 검색)
문 의 031-470-3200, 3201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1~3/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초기 불교 이해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2	안녕 다람살라	청전스님	운주사	7	궁금해요 불교	도업스님	운주사
3	요가 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8	께따까 정화의 보석 (입보리행론 지혜품 : 번아버리뮐의 주석서)	미팝 린포체/최로덴	담앤북스
4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9	1985년 12월 9일 영원한 오늘 : 마음 공부 에세이	풍원자	비움과소통
5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 생명현상과 연기 그리고 공	유선경/홍창성	운주사	10	오대산 노송 : 연암 현해스님 회고록	연암현해	민족사

책세상

순례지 깨달음 순간 펜 끝에 담다



세계는 한 송이 꽃이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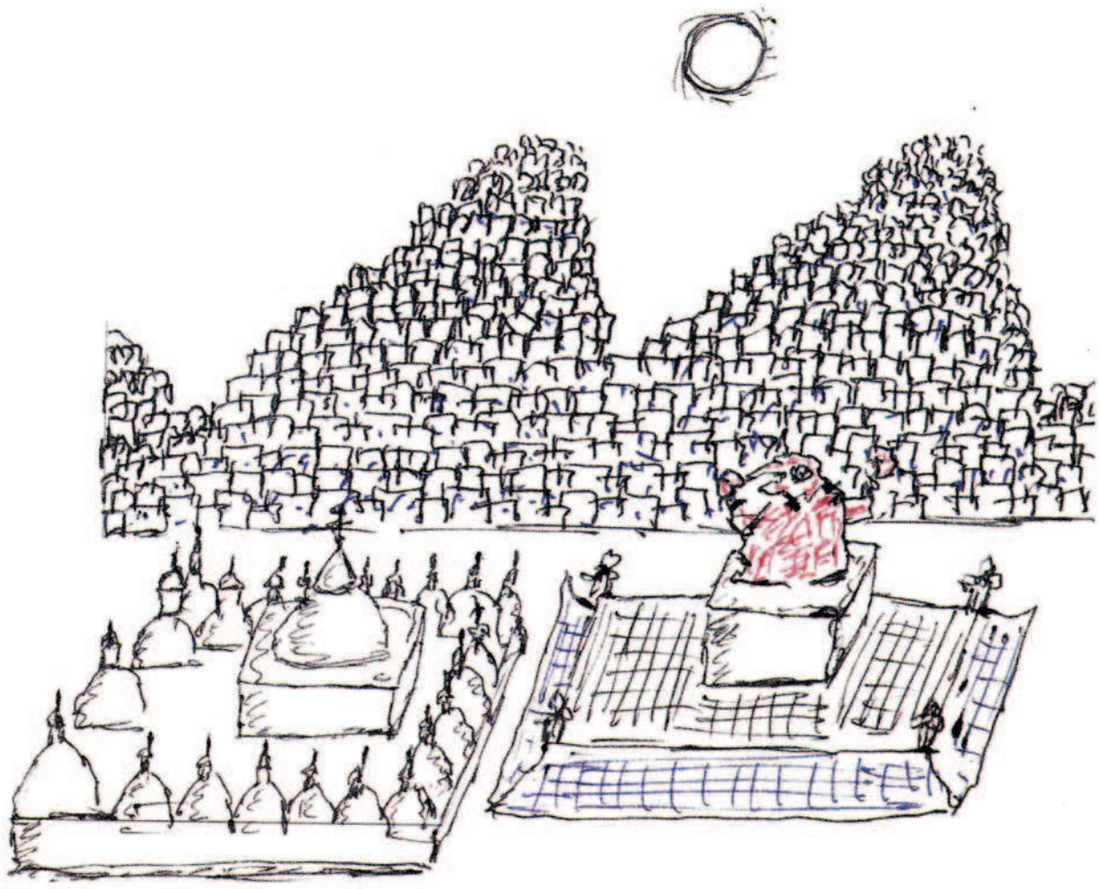
글 그림 진광/조계종출판사 펴냄/2만2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수행자와 함께 여행가란 이력을 붙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계 여러 나라를 만행했다. 내가 개인적으로 스님을 안 것은 25년 전. 친한 회사 선배의 속가 친구로 소개 받았다. 그때부터 스님은 좀 특별했다. 결제때는 선방서 가부좌를 틀다가, 어김없이 해제가 지나면 걸망지고 떠났다. 그것도 드넓은 세계로. 처음에는 단순히 바람쐬러 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진광 스님의 해외 순례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이번 책은 특히 2013년부터 교육원 순례를 7년간 기획하고 진행한 저자의 서화집이다.

촌철살인의 짤막한 글과 투박하지만 담박한 펜화 속에서 한 순간도 무심히 흘려 보내지 않겠다는 구도자의 시선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여행을 '구도의 길' 이자 '깨달음의 길' 로 삼은 진광 스님에게 시방세계는 곳곳이 꽃밭이요, 하나의 큰 꽃이다. 말 그대로 저자는 해외 순례를 통해 '세계일화' 의 안목을 키운 것 같다. 이렇게 그동안 순례 중에 보고 느낀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정리하며 저자는 운수납자의 '자유로운 영혼' 으로 살아왔다. 늘 일탈과 파격을 꿈꾸고 불가능한 꿈을 꾸면서 그것을 실현시키며 살아가고자 한다고 저자는 서문에서 밝힌다. 삶의 화두는 언제나 길과 희망, 그리고 깨달음과 회향이라는 게 진광 스님의 생각이다.

2013년부터 교육원 소임을 맡아 교육원 순례를 맡아온 진광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의 터줏대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방 정진 시절부터 만행 삼아 순례하며 세계 130여 개국을 여행한 행운을 누린 까닭에 이른바 '밥값' 겸 '재능기부' 를 하고자 해외 순례를 처음 기획한 것이 벌써 7년째다. 그동안 스님이 국내외 순례를 갈 적마다 새롭게 보고, 듣고, 경험하며 느낀 것들을 벼 이삭을 줍는 마음(滯穗遺秉)으로 한데 모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매년 해외 순례를 기획하고 동행하며 스님은 작은 수첩이나 다이어리 등 여백이 있으면 가리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틈틈이 순례 중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일기장이 무려 열 권이 넘는다. 그 안에 담긴 그림 한 점 한 점에는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깨달음의 순간을 날카로운 펜 끝에 담아낸 스님의 그림은 어느 것 하나 아깝지 않은 것이 없다. 수백 장의 그림을 한 점 한 점 추려 모으고 글을 다듬어 한 권의 책으로 묶는 작업 또한 스님이 걸어온 순례의 역사를 아우르는 작업인 만큼 쉽지는 않았다.

저자, 2013년부터 7년간 순례 기획
수좌 때 부터 130여 개국 만행 순례
순례 순간 간직코자 펜화 그림 시작
짧지만 깊은 울림준 이야기 '인상적'

진광 스님은 "화가나 눈 밝은 이가 본다면 실소를 금치 못할 정도로 졸렬하고 황망할 것이다. 나 또한 한없이 부끄럽고 욕되기만 하다"며 "그렇게 그리고 모은 서화집이 그러나 홀로 즐길 뿐이지 남에게 보여줄 만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스스로를 낮추지만 얼핏 보기에도 스님의 그림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펜화가인 김영택 화백은 스님의 그림을 "1998년 인도 배낭여행부터 그리기 시작한 그림 실력이 20여 년이 넘는 동안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그림치' 의 그림이라고 놀리면서도 "이 그림치의 그림을 계속 보노라면 지식과 가식의 벽이 허물어지고 천진무구한 어린이 세계로 이끌려 들어가는 듯"하다고 이중섭과 장욱진 화백의 그림이 떠오른다고 극찬할 정도다.

진광 스님 순례기는 한마디로 해외 순례의 산 역사라 할 만하다. 책 속에는 각각의 순례지에서 만난 그림 같은 풍경들뿐 아니라 스님이 처음 해외 배낭 여행을 가게 된 계기부터 인도, 중국, 일본은 물론 부탄, 실크로드, 티베트 수미산 등 혼자서는 찾아가기 어려운 불교 유적들을 순례하며 경험한 이야기, 미국과 러시아, 기독교 문명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등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정을 나눈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 있다.

아프리카의 구두닦이, 잔지바르섬의 흑인 청년 미셸, 러시아 딸내미 소피, 모로코 무슬림 여행자 등 만나는 이들의 애환과 즐거움을 미소와 자애의 마음으로 만난 스님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누군가와 교감하는 그 순간도 수행이 된다. 그래서 자연과 문화를 마주하고 오감으로 소통하는 스님의 순례길은 독자들에게는 곧 깨달음의 계기가 된다.

1998년 해인사 선원 하안거 중에 화엄사 우석 스님이 인도 배낭여행 이야기를 하며 "스님은 아마 못 갈걸"하는 한마디에 해외 배낭여행을 결심한다. 도반 스님의 한마디가 여행의 시작이 된 셈이다. 2014년 순례 길에는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하고 전날 묵었던 소도시에서 국화를 모조리 사 모은다. "염병할 놈의 세상"이라 분통을 터뜨리며 눈물의 추모재를 봉행하는 모습도 손에 잡힐 듯 스님의 펜 끝에서 되살아난다.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 러시아 바이칼 호수, 돈황 막고굴, 티베트 카일라스 성산, 페트라 알카즈네성전, 예루살렘 통곡의 벽, 이집트 룩소르, 고비사막 가욕관……. 스님에게는 가는 곳마다 성소요 성지이며 상상의 천국이다. 500여 쪽이 넘는 두툼한 두께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단 몇 쪽을 보더라도 절로 빨려들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된다.

학창 시절 한 번도 미술이나 예술 방면에 소질을 드러내거나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스님이 이같이 그림책을 펴내는 '무모한' 일을 벌인 것은 오로지 순례길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픈 마음에서이다. 아울러 불자가 아니더라도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작은 선물이기도 하다. 또 누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책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스님은 책을 묶어 펴낸 이유를 밝힌다.

▲저자 진광 스님은?

강원도 홍천서 태어나 양구서 자랐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겨울에 충남 예산의 덕숭산 수덕사로 입산해 법장(法長)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원담 노스님을 3년간 시봉하다 전국 선원서 20여 안거를 성만했다. 1998년부터는 해제철마다 전 세계를 배낭여행하면서 이후 130여 개국을 유력(遊歷)했다. 2010년 아프리카 여행 후 귀국해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으로 임명됐으며, 그 후 10년여간 연수국장, 교육국장, 교육부장 등 소임을 보며 수도승으로 살고 있다. 2012년 경주남산불적답사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해외 순례를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7년간 2300여 명 스님들이 순례에 동참했다.

2016년부터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 '천수천안'과 '수미산정'에 칼럼을 써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법보신문〉에 '동은 · 진광 스님의 사소함을 보다'를 1년간 격주 연재했다. 2020년부터 〈현대불교신문〉에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을 격주로 연재중이다. 저서로는 〈나는 중이 아니야〉와 교육원 이름으로 나온 〈순례, 세상을 꽃피우다〉가 있다.



禪師로 산 거사, 백봉 김기추



눈을 부릅뜨고 와 귀를 가리고 가다
최운초 지음/ 가을여행 펴냄/ 22,000원

박재완 기자 waniholl0@hanmail.net

"삶을 굴리되 항상 깨어있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성성하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사불교로서, 생활불교로서 생업을 행하며 깨어있는 것이다. 그 방법을 체계화하고 이름붙인 것이 '새말귀'다. 그의 수행방법론은 새말귀로 체계화되었다."

1970년대 보림선원을 열어 거사불교와 선풍을 크게 일으켰던 백봉 김기추 거사의 일대기가 출간됐다. 백봉의 제자 최운초가 지은 〈눈을 부릅뜨고 와 귀를 가리고 가다〉이다.

조선을 억압하는 일제에 저항했고, 교육 및 바른 정치로 민중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으며, 불교에 입문한 후에는 무자(無字) 화두로 정진했던 백봉의 삶을 12개의 장에서 조명하고 있다.

△제1장 '눈을 부릅뜨고 오다'는 백봉의 출생과 부산 청년동맹 활동 등을 소개하는 청년기의 기록이다.

1980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난 백봉은 부산 제2상업학교를 중퇴하고 민족운동을 벌이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1년간 복역했다. 이후 특급 요시찰 인물로 일제의 감시와 방해를 받으며 지내다 해방을 맞았다.

△제2장 '하늘을 날려하나 날개가 꺾이다'에서는 학교를 세운 이야기, 국회의원을 꿈꾸고 자유당에 입당, 그리고 자유당과 함께 침몰한 이야기 등 해방 이후의 백봉을 소개한다.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간사장이었던 백봉은 굶주린 주민들을 위해 양곡 창고를 열어 쌀을 나누어 주었고, 군정법령 위반으로 5년형을 언도받았다. 재심에서 무죄가 되었으나 이미 2년을 복역한 후였다. 이후 학교를 세우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던 백봉은 정치에 뜻을 세우고 자유당에 입당했으나 4 · 19혁명으로 자유당과 함께 파산하고 부산을 떠났다.

△제3장 '불교를 만나다'에서는 불교를 알게 되어 발심하게 된 이야기, 법을 찾아 절에 간 이야기, 무자 화두를 품고 정진한 이야기 등 백봉이 불교에 입문하게 된 과정을 소개한다.

"처음엔 화두가 안 잡혀서 애를 먹었어요. 내가 팔자가 나빠! 참말로 나빠!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화두를 가졌는데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팔자가 나쁜 내가 화두를 잊어버리고 공부를 안 하면 되겠나?' 하면서 다시 화두를 잡았지. 한 달 반쯤은 자꾸 놓쳤어요. 두 달 가까이 되니 화두가 슬며시 잡혀, 술자리에 가도 화두가 그대로 붙어 있어. 화두가 잡히니 재미가 나, 〈중략〉 서너 달 되니 화두가 딱 들어붙어서 안 떨어져. 처음에는 화두를 육조 스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조주 스님의 말씀이란 걸 나중에 알았어요.〈후략〉"

부산을 떠난 후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후일을 도모하던 백봉은 1963년 여름에 불교를 만나게 된다. 백봉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친구로부터 '불교'를 듣게 된다.

△제4장 '금강경 강송을 쓰다'부터 마지막 12장 '귀를 가리고 가다'까지는 〈금강경 강송〉을 완성하고 〈금강경〉을 강의하던 시절의 이야기와 보림회가 와해된 이야기, 보림선과 보림삼관, 〈유마경 강론〉 출간, 보림선원 개원, 새말귀 수행방법론으로 거사선풍을 일으킨 이야기, 선문염송 강의, 입적 등 백봉이 한국불교사에 남긴 불사들과 생을 마감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나는 말이지, 내 욕심인지 뭣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집이 전부 절이다.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집집이 출가하자. 가정살림 하더라도 마음 출가하자. 마음 출가하면 집집이 절이라. 집집이 절이면 집집이 중이라고도 할 수 있어. 가정생활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생활 하는 것이 참말로 불법의 도리예요. 몰라서 그렇지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 그러면 부처님은 왜 출가했느냐? 그건 사람들 교화시키려고. 일단 교화시키는 방편으로. 부처님도 시절인연을 안 따를 수 없어요."

백봉은 출가 제의를 받았지만 심사숙고 끝에 결국 출가하지 않았다. 당시 승려사회의 문제와

백봉 출생부터 입적까지 기록
금강경 · 선문염송 등 강의
보림선원 열고 거사선풍 중흥
새말귀 수행방법론 정립 보급

거사불교의 진흥을 위해 출가하지 않았다.

인천과 서울에서 〈금강경〉을 강의하던 백봉은 1970년 충남 유성에 보림선원을 열어 대학생과 수좌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1972년 부산으로 선원을 옮긴 후 선풍을 크게 일으켰다.

1985년 8월 2일, 백봉은 좌탈했다. 그는 사는 동안 〈금강경강송〉, 〈유마경 대강론〉 〈선문염송요론〉(15권), 〈백봉 선시집〉, 〈절대성과 상대성〉 등의 저서를 남겼다.

책의 저자는 백봉 거사의 제자 최운초이다. 저자는 스승을 미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을 경계했다. 스승이 남의 책을 베낀 이야기 등 제자로서 공개하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사실대로 썼다.

책은 민중을 사랑했던 한 사회운동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의해 무시당하고 탄압받는 조선 민중을 보며 일제에 대항했고, 해방 후에는 육영사업가로, 정치인으로 민중을 일깨우고 민중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대오 후에는 아집과 욕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미망에서 벗어나는 데 헌신했던 선각자의 이야기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성찰하는 일반 대중에게 책은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봉은 평소 "마음공부를 하려면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화두를 들고 선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백봉의 화두공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며, 화두공부에 진전이 없어 공부에 대한 의욕이 작아지고 있는 대중이나 새롭게 마음공부를 시작하려는 대중에게는 수행 안내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 본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대중에게는 백봉의 치열했던 노력과 자비심에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백봉이 생전에 보인 신기한 일들을 책에서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백봉의 지인들은 모두 아는 그의 전생이야기도 다루지 않았다. 스승의 일대기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사실의 기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근거를 보일 수 없는 이야기는 다루지 않았다. '불법은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도리이며, 그것이 스승을 제대로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자는 희미해져가는 스승의 행적을 정성스럽게 더듬어갔다. 300시간이 넘는 스승의 설법을 몇 번씩 들어가며 설법 속에 들어있는 스승의 행적을 찾아 모았고, 100명이 넘는 그의 제자와 가족들과 일일이 인터뷰했다. 일제강점기의 신문을 포함한 여러 신문에서 스승의 행적을 찾았고, 스승의 행적과 닿아있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좇았다. 또한 백봉의 삶을 이해하는 데 단서가 될 만한 장소와 기록을 모두 살폈다. 저자는 그렇게 8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2년에 걸쳐 원고를 마쳤다.

저자 최운초는 스물아홉에 백봉 거사를 만나 불교에 입문했고, 이듬해 선원에 입주해 백봉으로부터 사사했다. 서울대에서 우주항공공학을 전공하고 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영컨설턴트로 일했으며 〈성과주의의 혁신〉 〈이너게임〉 〈공겁인1,2〉 등의 저서와 8권의 역서를 출간했다.



1970년대 보림선원을 열어 거사불교와 선풍을 크게 일으켰던 백봉 김기추.

"무자화두 다 날아가 버렸어. 그건 빤한 말이라. 있다 해도 돼. 없지 않다 해도 돼. 없지 않음이 아니라 해도 돼. 다 날아가 버려. 빤한 말이라. 그 내용만 알면 말 붙이기 나름입니다."



저자 최운초는 스물아홉에 백봉을 만나 불교에 입문했다.

불교를 통해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생명현상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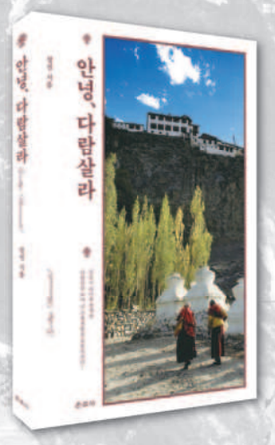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본질주의에 입각한 서구의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불교의 연기와 공의 관점만이 현대 생명과학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유선경, 홍창성 지음/국판 무선/336쪽/값 15,000원

30년 동안 다람살라에 머물며, 스승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청전스님이 풀어놓는 이야기들!



안녕,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화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티없이 맑은
노스님들의 이야기!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감동적인 모습들!

청전 지음/국판 무선/200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연등회 인류무형유산 등재 총력”

문화재청 주요 계획 발표… 4대 목표 · 15개 과제 제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전수조사한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3월 11일 발표했다.

4대 전략 목표와 15개 과제를 제시한 문화재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사문화자원(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착수’다.

‘역사문화자원(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는 문화재 보존 · 관리 체계를 ‘목록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 역사문화자원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이뤄진다.

이는 문화재청이 지난해 6월 개청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문화유산 미래정책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중점 계획이다. 당시 문화재청은 “현재의 지정 위주의 문화재 관리가 아닌 목록주의적 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전수조사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지정문화재 중 훼손과 멸실 우려가 높은 건조물과 역사 유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사는 올해 대구 · 경북 ·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233억 원이 투입돼 5년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게 문화재청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비지정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목록화 해 문화재 정책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활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가 시급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리 사각 비지정문화재 조사
문화유산 관리체계 전환 진행
목조문화재에 첨단 방재 설비
안료 등 전통재료 복원사업도

이어 “조사된 자료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들과 공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지정문화재를 관리 ·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주요 업무 과제로 제시했다.

‘연등회(Yeondeunghoe: 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는 부처님 오신날인 음력 4월 8일에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거행되는 불교 행사로, 삼국시대로 그 연원이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계승된 불교 의례다.



지난 2017년 진행된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제등행렬 모습. 행렬의 부처님 장엄등은 한마음선원에서 제작한 것이다. 연등회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오는 12월 결정될 예정이다.

실제,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경문왕 6년(866년)과 진성여왕 4년(890년)에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았다(看燈)’라는 기록이 전해져 오랜 시간 한반도에서 거행된 행사임을 알 수 있다.

연등회는 연등법회와 연등행렬, 회향(廻向) 등으로 이뤄졌으며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공휴일로 제정되면서 오늘날에는 중요한 문화행사로 발전했다.

지난 2012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전승교육을 맡아 △전통등 제작 강습회 개최 △지역봉축위원회 연계 연등회 행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체계적 전승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8년 4월 유네스코 본부에 연등회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등재를 위해 연등회보존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연등회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오는 12월 열리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전국 주요 사찰들을 순례할 수 있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도 시행된다. 국내 세계문화유산 · 인류무형유산을 중심으로 ‘방문코스’가 구성됐으며 4월 말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갈 예정이다.

불자들이 주목할 만한 코스는 단연 테마 코스의 ‘수행의 길’이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포함된 마곡사 · 법주사 · 대흥사 · 선암사 · 송광사 · 통도사 · 해인사 · 부석사 · 봉정사를 순례하는 코스다.

또한, 불국사와 석굴암을 시작으로 봉정사로 마무리 되는 ‘천년 정신의 길’과 마곡사에서부터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으로 이어지는 ‘백제고도의 길’도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은 “각 코스별로 주변 관광정보, 이벤트 등을 연계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캠페인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료와 아교 등 전통재료 복원을 위한 사업도 이어진다. 올해에는 전통 단청 안료 제법 복원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범어사 명학당, 구례 연곡사 동 승탑비 종각, 영주 흑석사 심검당 등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해 전통단청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기화재 예방 ICT(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을 처음으로 설비하고 주요 목조문화재 364개소에 소화전, CCTV 등 방재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지난 6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문화재 보호 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함께 문화유산을 일상적인 여가공간으로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 활용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근대 불교잡지 ‘불교’ 문화재 된다

문화재청 9일 등록 예고
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본
근대불교사 연구 중요자료

동국대 중앙도서관에 소장 중인 근대기 불교종합지 〈불교〉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 조계종 원효사가 소유하고 있는 ‘광주 舊 무등산 관광호텔’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대표적 불교 종합지인 〈불교〉 등 4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고 조계종 원효사 소유 ‘광주 舊 무등산 관광호텔’과 ‘김천 나화랑 생가’ 등 3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3월 9일 밝혔다.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불교〉는 일제강점기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로, 1924년에 창간돼 1933년(통권1~108호)에 폐간됐다. 이후 속간으로 1937년부터 1944년(통권1~67호)까지 발행됐다.

〈불교〉에는 당시 불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중심으로 편집해 일제강점기 당시 불교계 현실 인식이 담겨 있다. 특히, 1931년부터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편집 겸 발행을 맡아 ‘정(政) · 교(敎)를 분리하라(제87호, 1931.9)’, ‘조선불교의 개혁안(제88호, 1931.10)’ 등의 논설을 게재해 일제의 종교 간섭을 비판했다. 현재는 동국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근대기 불교종합지 ‘불교’의 1924년 창간호 첫 페이지.

문화재청은 “해당 유물은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전부 보존돼 있어 완결성이 있다”면서 “일제의 불교정책과 그에 대응하는 불교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어 근대불교 연구를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라고 등록 예고 이유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불교〉와 함께 김천고 본관과 舊 과학관, 수원시 급수탑 등 4건을 문화재 등록 예고했으며,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등록문화재 제776호로 등록된 ‘광주 舊 무등산 관광호텔’은 한국전쟁 이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악산, 서귀포, 무등산 등 국내 명승지에 건립한 관광호텔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축물로 관광사적 의미가 크다.

또한 5 · 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임시 피난처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근현대사적 가치도 있다. 현재는 조계종 원효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국가등록문화재 제775호 ‘김천 나화랑 생가’는 광복 후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나화랑(본명: 조광환)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과거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광주 舊 무등산 관광호텔’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한문아카데미 연수생 추가 모집

심화 · 기본과정 27일까지 접수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불교한문아카데미에서 1학기 ‘심화과정’과 ‘기본과정’ 연수생을 추가모집 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시책과 학교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한문불전 역경인재 양성을 위한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는 한문불전 번역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기본과정’과 역경전문가를 배출하는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과정별로 매학기 마다 15주 동안 진행되는 강좌로 이뤄진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과목씩 5강좌가 운영되며 10강좌(30학점) 이상 이수하면 수료할 수 있다. 일반수강생은 기본과정 강좌 가운데 한 과목 이상 개별 수강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3월 27일까지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선발연수생에 대한 면접 및 필기 전형은 개별적인 일정 협의 후 진행된다.

지원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홈페이지(abc.dongguk.edu/academy)에서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자기소개서와 대학(원) 재학증명서(혹은 수료증명서)를 이메일(hanmun@dongguk.edu)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국립중앙博 31일까지 ‘나도 큐레이터’ 공모

누구나 집에서 문화유산 사진들을 모아 전시기획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3월 31일까지 전국국 · 공 · 사립과 대학박물관 등의 소장품을 공개하고 있는 e뮤지엄을 통해 ‘집에서 전시기획 한다. 나도 큐레이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3월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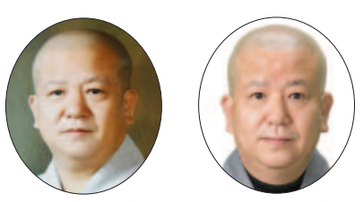
참가 주제는 자유이며 e뮤지엄에 접속해 회원가입한 뒤 참여할 수 있다. 전시기획의 독창성과 완성도 등 참가자가 작성한 제목과 설명에 따라 구성이 잘 됐는지를 평가하고 최우수상 4명, 우수상 10명, 장려상 50명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한다. 신성민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코로나19에 日불교도 '비상'

종조 기념법회 · 불사 낙성법회 대폭 축소

박영빈 객원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본불교계도 행사를 축소하거나 중지에 나섰다. 3월 2일, 일본의 '교토신문' 등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보도했다.

일본불교계가 조정에 나선 법회들은 대부분 4월에 집중해 있다. 교계행사에 양력을 채택한 일본불교계는 4월 8일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비롯해 주요한 행사들이 4월에 몰려있다.

먼저 대형 종단들인 정토진종 오타니파의 총본산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와 정토종의 총본산 지온인(知恩院)은 4월에 봉행될 예정이었던 법회와 행사들을 대폭 축소했다. 교토에 소재한 두 사찰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관광지로도 유명해 연중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히가시혼간지 측은 4월 1일부터 나흘간 예정됐던 연례 춘계법회의 일정을 과감하게 단축했다. 춘계법회는 정토진종의 종조인 신란상인의 탄생을 기리는 대법회로 올해는 전국에서 약 8000여 명의 신도들이 히가시혼간지를 참배할 예정이었다.

히가시혼간지 측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감염 예방을 위해 나흘간의 법회 기간 중 3회에 걸쳐 예정된 기념강연과 심포지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법회에 참석을 신청한 각 참배 단체와 사찰의 대표자들에겐 단체참배를 거절하는 연락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

양력 사용하는 일본불교계
부처님오신날 비롯한 행사
4월 중 대부분 예정돼 있어
사중행사 또는 연기 결정해

나 법회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히가시혼간지는 "법회는 이미 정해진 소임자들과 대중스님들로만 진행될 예정이며, 개인 참배의 경우 반드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준비한 이에 한해 법당의 출입을 허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온인은 4월 중순 예정된 행사를 완전히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온인은 중심법당인 미에이도(御影堂)의 복원수리



춘계법회를 대폭 축소한 히가시혼간지. 사진출처=위키피디아

공사를 완료하는 대규모 낙성법회와 부대행사를 준비 중이었다. 또한 종조인 호넨 스님의 불상을 복원을 마친 미에이도로 이운하는 법회 역시 외부인을 제외한 채 지온인의 대중스님들로만 오전 중에 회향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온인 측은 "연례로 진행해온 종조 호넨 스님의 원적 기념법회 역시 지온인의 대중스님들로만 진행되며, 사부대중에 함께 진행했던 철야 염불정진도 올해는 중지"라고 발표했다. 단 미에이도 자체만은 이운법회를 마친 4월 13일 오후부터 일반에 공개되나 개인위생과 감염예방 대책을 철저히 한 가운데 참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쿄도내의 하지오지(八王子)시 불교연합회 역시 4월 초순에 준비 중이던 합동 봉축행사를 중지, 각 사찰에서도 최대한 봉축행사를 축소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불교회 측은 "부처님의 탄생을 모두 함께 기리는 뜻깊은 법회이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내 일부 사찰에서 본 행사일에 맞춰 봉축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나, 각자 건강상태를 확인 후 참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일본 각지에서 준비 중이던 동일본 대지진 위령법회 등도 중지되거나 축소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본불교계 행사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글라데시 최고 원로승 잠들다

최고승가위 지도자 슈다난다 스님 입적



방글라데시 최고 원로 슈다난다 마하테로 스님. 사진출처=니르바나피스

방글라데시의 종교화합을 위해 힘써왔던 고승이 입적했다. 3월 4일 불교 전문 매체 '글로벌 부디스트도어'는 방글라데시 불교의 최고 원로였던 상가나야카 슈다난다 마하테로(Sanghanayaka Suddhananda Mahathero)스님의 입적소식을 보도했다.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방글라데시 현지 언론들을 인용해 "슈다난다 스님은 지난 3일, 수도 다카에 소재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입적에 들었다"고 밝혔다. 세수 87세.

1933년에 태어난 슈다난다 스님은 방글라데시 최고 승가위원회의 지도자인 '상가나야카(Sanghanayaka)'로 활동해 왔다. 스님은 주로 불교와 이슬람교의 오랜 불화의 역사를 종식시키고자 노력했다. 이슬람교도가 절대 다수인 현지에서 불교는 방글라데시에서 세 번째로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슈다난다 스님은 수백가구의 소외된 이슬람가정에 할랄 음식을 제공하고,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고아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회봉사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은 스님은 2012년 방글라데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 훈장인 '에쿠셰이 파닥(Ekushey Padak)' 훈장을 수훈했다.

생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암살시도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슈다난다 스님은 "우리는 모두 방글라데시 국민이며, 서로 도와야 우리의 조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종교간 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의 입적소식을 들은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방글라데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 스님은 비폭력의 선구자이며 사회봉사에 헌신한 평화와 인류애의 전달자였다. 계급과 신념, 종교,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합을 강화한 공헌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 성명을 발표했다.

현지 언론들은 "슈다난다 스님의 법구는 생전 주석하던 담마라지카 사원으로 모시고, 제자와 불교도, 추모객들이 조의를 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전쟁 중 공출된 조사상, 75년만 복원

시텐노지, 금속회수령에 잃은 전교대사상 6일 복원 회향식

일본 최초의 관사인 시텐노지(四天王寺)에서 뜻깊은 복원이 이뤄졌다. 3월 8일, 일본의 '오사카 히니지 신문'은 복원된 전교대사상 봉안법회를 보도했다. 2차 세계대전 중 금속회수령으로 공출된 지 75년만이다.

593년 쇼토쿠 태자(聖德太子)가 국가의 명으로 건립한 시텐노지는 창건 이래 일본불교의 정신적인 구심점으로, 일본불교의 많은 위인들이 수학하거나 참배한 역사가 있다. 이 중 일본불교의 조사인 전교대사 사이쵸(傳教大師 最澄) 역시 50세에 제자들과 함께 시텐노지를 참배했다. 당시 사이쵸 대사는 쇼토쿠 태자가 선양하던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천태종을 창설, 남은 일생을 〈법화경〉의 가르침을 펴는 데 바



75년 만에 복원된 전교대사 사이쵸의 동상. 사진출처=오사카 히니치 신문

치겠노라 서원했다. 사이쵸 대사는 시텐노지를 참배해 자신의 서원을 게송으로 지어 쇼토쿠 태자 사당에 봉헌했다. 이 게송은 현재 사이쵸 대사의 문집에 수록돼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시텐노지의 금당과 쇼토쿠 태자의 사당 사이에 사이쵸 대사의 동상이 봉안돼 있었다. 시텐노지 측은 "공출 전의 대사상은 쇼토쿠 태자를 서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조성돼, 노천에 모셔져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 한국에 내려진 금속회수령으로 시텐노지는 당시 세계 최대의 범종으로 불리던 대범종(약 64톤)과 구세관세음보살상, 보현보살상, 부동명왕상, 신란상인상 등의 금속 불상들과 불구들이 대거 공출되면서 사이쵸 대사상도 함께 공출됐다.

시텐노지는 내년의 전교대사 원적 1200주년과 오는 2022년의 쇼토쿠 태자 원적 1400주년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사이쵸 대사상의 복원을 결정했다. 대사상은 공출 전 촬영되었던 사진과 기록화에 남아있는 모습들을 참고, 전문 복원업체와 협의 끝에 약 10개월 만에 재탄생했다. 또한 당초에 노천불이었던 것과 달리 작은 전각을 세워 봉안하기로 결정했다. 전각의 이름은 천태종의 중심사상인 '법화일승(法華一乘)'에서 따와 '일승원(一乘院)'으로 명명하고, 쇼와 일왕의 글씨 가운데 '전교(傳教)'를 집자해 편액으로 걸었다.

지난 6일 봉행된 봉안 낙성법회에서 시텐노지 총무부장 요시다 메이료 스님은 "일본불교의 다양한 종파와 조사들께서 시텐노지에서 수행하신 족적을 불상으로 모시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창건주인 쇼토쿠 태자와 깊은 인연이 있는 전교대사께서 다시금 돌아오시게 돼 마음깊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텐노지 측은 "연례행사로 진행해왔던 전교대사의 원적일 기념법회를 앞으로는 이곳, 일승원에서 봉행하겠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불교사원, 총격사건 피해 입어

워싱턴주 올림피아서, 인명피해는 없어

미국 워싱턴주 올림피아 시내에 위치한 불교사원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났다. 3월 2일 미국의 지역언론 'KIRO7'은 미국 워싱턴주 올림피아 시내에 위치한 불교사원 투쉬타 카담파(Tushita Kadampa)사원을 향한 총기난사 사건을 보도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투시타 사원과 동일 건물에 있는 사업장 2곳이 총격 피해를 입었다.

올림피아시 경찰당국은 "2일 새벽 오전 3시 15분경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총격피해를 확인했다.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탄약통과 권총으로 발포한 총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범인은 최소 5발의 총을 쏘고 도주했으며, 현재 수색중"이라고 전했다.

투쉬타 카담파 사원은 총격으로 정문에 탄흔이 남고, 창문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건으로 아침 예불이 일시 중단됐으며, 파손된 부분은 전기 테이프와 나무판자 등으로 임시 보수했다. 그 외 사원 내부의 불상과 법구들에 있어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시타 카담파 사원에 상주하는 켈상 타르텐 스님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우리는 외부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두렵다. 총격사건으로 매우 혼란스럽긴 하나 불교도들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 정진하는 사람들이다. 총격사건으로 인한 충격을 얼른 극복하기 바란다"며 사건 피해로 불안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시내 한복판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매우 불안하다"며 경찰당국의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현재 올림피아시 경찰은 범인색출을 위한 보안 카메라 확인과 목격자 등의 자료를 수색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부처로 태어나길 소원하다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⑥ 연등불수기본생도

불교도에게 가장 소원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게 해주소서."

성불(成佛)을 이루려면 이번 생에서는 세상의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하여야 하며, 또한 이 전의 여러 생에서 수많은 보시와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한다. 이번 생에서 해탈을 하기는 불가능하니 우선 보시와 공덕부터 차근차근 쌓아보려고 한다. 선행 학습하는 자세로 불교에서 지향하는 보시와 공덕의 구체적인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대장경에 의하면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藥事, Vinayavastu, 이하 비나야약사)〉에 가장 다양한 보시와 공덕의 이야기가 적혀있다.

연등불에게 수기 받는 수메다
석가모니 부처의 전생 이야기
간다라서 한국까지 도상 전파
〈비나야약사〉에 도상적 근거
成佛 위한 공덕 · 발원 담아내

불교 경전은 내용상 크게 경장(經藏) · 율장(律藏) · 논장(論藏)의 삼장(三藏)으로 구분하는데 경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율장은 출가 승단의 생활에 대한 규율을, 논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논사들이 이를 해석한 것을 말한다.

〈비나야약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여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생활규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율장에 속하기 때문에 경전명의 끝에 '경'을 붙이지 않는다. 〈비나야약사〉는 당(唐) 의정(義淨)이 700년에서 711년 사이에 번역하였으며, 모두 18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비나야약사〉는 제목과 달리 약사(藥事)와 관련된 것은 처음 1권과 2권뿐이고 나머지는 인연담과 본생담(本生譚, Jataka)에서 차용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성불을 위해서 공양과 서원(誓願) 그리고 수기(受記)를 중요시하고 있는 경전이다.

본생담은 석가가 전생에 수많은 공덕과 희생을 쌓아서 부처가 되었음을 강조한 이야기들로서,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연등불수기본생담(燃燈佛授記本生譚)'이다. 본생담에 "전생의 석가모니불이 바라문의 청년 수행자 수메다(善慧童子, Sumedha)였을 때, 연등불(燃燈佛, Dipaṃkara이며, 제화갈라 · 제원갈 · 연등불 · 보광불 · 정광불 등으로 칭한다)에게 다섯 송이의 연꽃을 산화 공양하고 진흙 위에 자신의 사슴가죽 옷과 머리카락을 깔아 연등불이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덕으로 연등불로부터 '앞으로 91겁 후에 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들었다"라고 적혀있다.



남송시대 그려진 〈연등불수기본생도〉의 모습.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머리를 풀어 연등불이 밝고 지나갈 수 있도록 엎드려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 수메다가 묘사돼 있다.



1세기 조성된 〈연등불수기본생도〉로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소정돼 있다.



전북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에 조성된 〈연등불수기본생도〉 벽화의 모습.

공양자인 수메다가 부처님께 서원을 하고 내세에 석가모니 부처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인 수기를 받는 것을 주제로 한 연등불수기본생담은 기원 후 1세기에 간다라 지방에서 성립되었다. 연등불 수기는 마투라 지역이나 인도 내륙에서는 표현되지 않았고, 간다라 이북의 동쪽을 거쳐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으로 전파된 도상이라는 특징이 있다.

'연등불수기본생담'을 묘사한 이른 사례인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 소장 시크리출토 〈연등불수기본생도〉의 화면 전개를 살펴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면이 전개되고 있다. 먼저 화면 왼쪽 건물 문 앞에는 물병을 겨드랑이에 끼고 연꽃을 파는 고삐와 바라문의 수행자 수메다가 고삐에게 꽃을 사려고 서 있고, 이어서 수메다가 연등불을 향해 산화 공양을 올리고 있으며, 그 연꽃들이 연등불의 머리 주위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수메다가 사슴가죽 옷과 머리카락으로 진흙을 덮고 엎드려 있으며, 그 앞에는 연등불이 수메다에게 석가모니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맨 위쪽에는 예언을 받은 수메다가 기뻐서 공중으로 뛰어올라 합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한 화면에 주인공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표현은 간다라에서 시작해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쿠차 지역의 키질석굴을 거쳐 투르판 베제클릭석굴에 비나야약사를 도해한 여러 장면의 벽화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베제클릭 20굴의 〈연등불수기본생도〉를 살펴보면 화면의 아래에 수메다가 손에 연꽃을 들고 진흙 바닥에 엎드려 머리카락을 풀어 연등불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에 입상의 연등불이 수메다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연등불을 중심으로 여러 권속과 공양자, 사원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이 그림의 주제 및 경전적 근거는 화면 상단의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방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방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번째 아승기겁 전에 저 높이 빛나는 명성을 지니신 연등불을 친견하고서 나는 그분에게 일곱 종류의 지마(芝麻)와 연꽃을 공양하였다.(…我初供養燃燈佛 乃至寶髻 佛以清淨心…)"

–〈비나야약사〉의 게송

베제클릭 20굴에는 연등불수기 이외에도 14장면의 수기와 서원에 관한 벽화가 도해 되어 있는데, 모두 그 근거를 〈비나야약사〉에서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연등불수기본생도〉의 도상학적 근거 역시 본생담을 기본으로 하여 수기와 서원을 강조한 〈비나야약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등불수기본생도〉는 중앙아시아를 넘어 동쪽으로 전파되어 중국 내륙에도 전해졌다. 남송(南宋)시기에 비단에 두루마리 형태의 화면에 그려진 이 그림은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머리를 풀어 연등불이 밝고 지나갈 수 있도록 엎드려 있는 수메다가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수메다를 향해서 손을 뻗어 수기를 내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연등불의 모습이 보인다.

또한 연등불의 주위에는 이전의 간다라 지역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에 비해서 사천왕, 팔부중, 보살, 비구 등 권속들의 수가 현저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의 흥미로운 점은 연등불이 중앙아시아지역의 사례처럼 연꽃이 아닌 황색의 옷을 밟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점이다. 아마도 화가는 수메다가 바친 사슴가죽 옷을 적극적으로 묘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수메다의 공덕과 희생은 중세와 근대를 지나서까지도 불교도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고, 현재도 사찰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제이다.

전북 김제의 금산사는 과거불(過去佛)인 가섭불(迦葉佛) 시대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사찰이다. 이곳의 대적광전은 금산사 내에서 수계(受戒) · 설계(說戒) · 설법(說法) 등의 법요를 진행하는 전각으로서, 외벽에 〈연등불수기본생도〉가 도해되어 있다.

이 벽화는 비록 현대에 그려진 그림이지만, 간다라 지역에서 성립되어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서원과 수기에 대한 본질을 충실히 담고 있다. 직사각형의 화면 아래에는 머리를 풀어 연등불에게 보시를 하는 수메다와 수메다가 바친 옷이 묘사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수메다를 향해서 수기를 내리는 입상의 연등불과 뒤로 세 명의 비구가 표현되어 있다.

남송의 〈연등불수기본생도〉에서는 연등불이 옷을 밟고 있었지만, 금산사의 연등불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연등불처럼 청련과 홍련의 연화대좌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수메다가 공양한 옷의 묘사로서, 사슴가죽 옷 대신 청나라의 관복과 흡사한 붉은 색 목둘레가 장식된 녹청의 장포가 표현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아마도 청나라 때 유입된 연등불수기 도상이 현재에까지 이른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사슴가죽 옷이든 청나라 관복이든 본질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시이며,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공덕을 쌓으라는 가르침일 것이다.

석가모니께서 어떻게 공덕을 쌓아서 부처가 되셨는지 알게 되었으니 그대로 따라서 하면 성불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가난한 수행자 수메다는 연등불에게 연꽃을 올리기 위해 연꽃 장수 고삐에게 가지고 있는 황금 모두를 내어주고 내세에 그녀와의 결혼을 약속했다.

또한 진흙 길 위에 자신의 머리카락과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서 연등불이 편하고 깨끗하게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보시와 공덕을 하였다. 과연 이생에서 나는 몇 번이나 이러한 선업을 쌓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다음 생에도 굳세게 서원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성불은 절대 불가능하겠다.

성불이 불가능하니 유리개울이 흐르고 아름다운 천녀들이 노래하는 도솔천은 어찌 가야하는까. 정진할 뿐이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옥천범음대학
불교의식 특별반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모집인원 : 30명
▣ 전형일자 : 2020년 3월 31일까지
▣ 수 업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4시
▣ 지도교수 : 조현성 스님
▣ 교육과정 : - 도량석·종송·향수해례·삼보통청·사시불공·중단퇴공·각단불교의식·상용영반·식당작법 등
- 각종행사 불공의식
- 불상점안·사다라니작법
- 예수재작법
- 사물 및 불교무용(바라, 나비춤, 법고무 등) 심화교육

입 · 학 · 문 · 의 www.okchunbud.kr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전선간격 :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고추구 12E 인지구 26E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집단지능, 불교 민주주의 이끈다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⑥ 민주주의는 대세 정치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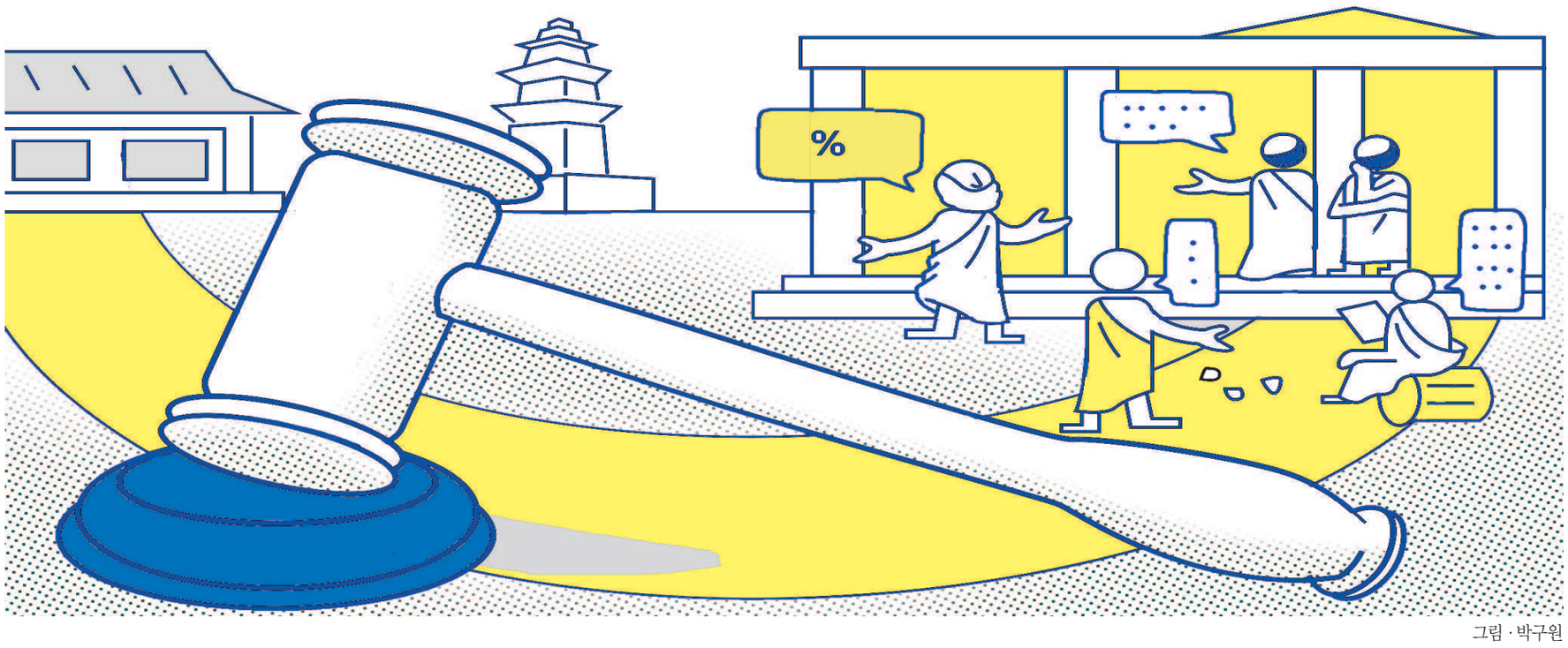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소크라테스와 대화했던 아테네의 수많은 지식인은 소크라테스를 무척 미워했을 수밖에 없었다. 소크라테스가 질문하면 소피스트라 불리웠던 당대의 지식인이 답하고 다시 질문하면 답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어졌다. 소피스트들이 질문에 답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답변이 모순됨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러한 대화법을 소크라테스의 변증법이라도 부른다. 얼마나 창피하고 화가 났겠는가? 대화가 진행될수록 소크라테스의 적은 많아졌다. 소크라테스는 명문가의 자제에게 인기가 좋았고 그들이 제자가 되자 점점 질시의 대상이 된다.

급기야 다른 신을 섬기고 청년을 현혹한다는 죄목으로 법정에 넘겨졌다. 그에 대한 판결은 아테네 시민이 투표에 의해 결정했는데 조개껍질에 투표를 했기에 도편투표라고 불리우는 방식이다. 여성과 노예는 투표권이 없었지만 시민의 대표가 투표한게 아니라 모든 자격 있는 시민이 투표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의 효시라고 불리운다. 소피스트를 비롯한 아테네의 정치권력은 우매한 대중을 선동했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소크라테스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아테네의 황금 시절은 지나가고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아테네의 정치적 불안은 어느덧 소크라테스라는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외국으로 도망가라는 권유를 거절하고 독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한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직전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어떤 제자가 눈물을 흘리자 오히려 소크라테스는 위로하며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빚진게 있다며 제자에게 갚아달라고 부탁한다. 이게 그 유명한 마지막 유언이다. 즉 닭 한 마리를 빚졌다는데 빚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아테네인이 아플 때 기도하는 치료의 신이다. 즉 치료의 신에게 닭 한마리를 빚졌다는 거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유언이다.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보던 수제자 플라톤은 아테네에 실망하고 아테네를 떠나 수십년 동안 외국을 돌며 공부한다. 일설에 의하면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했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 다시 아테네로 돌아온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란 인류 최초의 대학을 설립하고 제자를 양성한다. 플라톤의 수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킨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을까? 그래서인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통해 어리석은 대중의 정치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실망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오늘날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어리석은 대중의 정치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지만 독재의 위험이 있는 다른 대안보다는 낫다. 그 어떤 선진국도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정치학자도 민주주의 결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모든 주요 정치의사결정을 하는 직접 민주주의였다. 오늘날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민주주의는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간접 민주주의다. 우리가 선출한 정치인이 주요 정치의사결정을 하는 간접 민주주의는 최근 들어 흔들리고 있다. 인터넷과 IT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제도이다. 스위스처럼 아주 훌륭하게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킨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도 있다. 대중은 감정과 선동에 쉽게 좌우되며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명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보와 전문성이 있다는 정치인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가는 의문이다. 더구나 아테네 시대와는 달리 우리는 국민의 교육 수준과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 시대를 살고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의 폐해 같은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사람의 아이큐(IQ)는 '지능지수'라고 표현한다. 집단의 아이큐(collective intelligence)는 따라서 '집단지성'이 아닌 '집단 지능'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오늘날은 집단 지능이 높은 시대이다. 정치의사결정에서 천재가 있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천재 한명 보다 평범한 시민 10명의 판단이 더 나은 시대이다. 당장 인터넷 기사를 보면 기자나 정치인보다 댓글의 수준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 기자, 정치인, 국민은 모두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기자나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면 문제가 되지만 국민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의 문제다.

독재 단점 막아 대중 선호
불교선 '참여'의 가치 강조
'衆愚' 막는 새 대안을 형성

불교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다. 승가의 의사결정은 구성원의 대표가 참여하여 결정하기보다 전원이 참석하는 만장일치였기에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부처님 사후 가르침을 정립하는 1차결집은 기록에 의하면 500명, 1000명 혹은 1000명 이상이 참여한 모임이다. 2차 결집은 700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마이크와 음향 장치가 없던 시기에 500명이 참여했다고 해도 대단한 규모다.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최대한 많이 참석한 규모로서 직접 민주주의에 더 가깝다.

민주주의 탄생지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아테네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어원도 그리스어에서 나왔다. 오늘날 그리스를 민주주의의 모범국으로 칭송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리스에는 재미있는 제도가 있다. 만약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투표에 불참했다고 당장 벌금을 주거나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공서에 볼 일이 있어 가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한다.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즉 투표에 불참하면 관공서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두배의 요금을 내도록 한다든가,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가산점을 받게 한다든가, 각종 다양한 이익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없이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부분적으로 전자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기술적으로는 오래 전에 가능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도입이 안되고 있다.

오늘날 간접 민주주의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각종 주민참여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거나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이다. 요즘은 정책의사결정만이 아니라 집행과 평가 단계에서도 주민이 참여한다. 이러한 참여 민주주의는 계속 확대되리라 생각한다.

불교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다. 〈대반열반경〉에 의하면, 마가다국 왕이 부처님께 사신을 보내어 밧지국을 점령할 지혜를 요청했다. 부처님은 사신에게 대꾸하지 않은 채 제자 아난에게, "밧지족이 자주 모임을 갖고 많은 사람이 참석하느냐? 밧지국 사람들은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며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데 사실이냐."고 묻는다. 우리는 무기나 재정, 인구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아난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부처님은 "밧지족은 번영이 있을 뿐 쇠망은 없을 것이다."라고 설했다. 많은 사람이 자주 모임에 참여하여 화목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적 행위가 국가의 번영에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불교 민주주의가 참여 민주주의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다.

〈사분율〉은 "희망하는 뜻을 위임하지 않고 떠나면 계율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비구가 떠나야 하므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면 자신의 의견을 대신 표명해달라고 위임해 놓고 떠나야 한다. 위임을 해서라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개진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뜻에 어긋난다. 부처님은 모든 비구가 항상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시하기를 바라셨다. 이러한 조항은 투표하지 않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리스 제도와 비슷한 맥락이다. 1차 결집과 2차 결집에서 소수의 엘리뜨 출가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많은 출가자에 의해 경전이 확립된 것도 참여 민주주의적 성격이다. 4부 대중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참여 민주주의다.

인터넷과 IT 기술로 연결된 현대 사회는 불교의 인드라망을 연상하게 만든다. 중중무진의 법계연기는 전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21세기를 묘사한 것이 아닐까? 인터넷과 IT 기술의 대두로 이제 국민이 정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미 스위스에서는 크고 작은 정치의사결정이 모두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결정된다. 주민은 정치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한다. 불교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집단 지능은 점점 더 위력을 발휘하고 아테네식의 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폐해는 최소화 될 것이다. 어쩌면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 참여 민주주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닐까? 오래 전 부처님에 의해 꽃피웠던 불교 민주주의가 다시 꽃피울 시대가 왔다. 불교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다.

〈고려대 명예교수〉

2020년
불교
장학금 및
활동비
공모

접수 : 2020.4.20 ~ 5.15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과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과 불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불교 장학금 및 활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 자격(불자인 개인 또는 단체)
① 개인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② 단체 : 초등학생 불교 동아리, 중 · 고등학생 불교 동아리, 대학생 · 대학원생 불교 동아리

◑ 장학금 및 활동비 지원 금액
① 개인 : 중 ·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 대학원생 300만원
② 단체 : 초등학생 불교 동아리 50만원, 중 · 고등학생 불교 동아리 100만원,
대학생 · 대학원생 불교 동아리 100만원
[선정된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교사)에게 50만원 별도 지원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추천인 사인 포함)
* 개인 : 중 · 고등학생은 불교 동아리 지도교사, 대학생 · 대학원생은 학과장 또는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의 추천인 서명 받을 것.
* 단체 : 초 · 중 · 고는 불교 동아리 지도교사, 대학 · 대학원은 학과장 또는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의 추천인 서명 받을 것.
-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접수
- 기간 : 2020년 4월 20일(월) ~ 5월 15일(금)까지
- 방법 : 우편(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 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함.
- 문의 전화 : 02-719-2606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0년 6월 초(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2020년
불교
학술 및
콘텐츠
공모

접수 : 2020.4.20 ~ 5.15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해 불교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단체)를 대상으로 불교 학술 및 콘텐츠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 자격 :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분야
① 불교 학술(저서 · 번역서)
② 불교 콘텐츠(만화 · 동화 · 소설 ·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
(* 저서는 200자 원고지 1,200매 이상, 번역서와 만화 · 동화 · 소설 ·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은 제한 없음.)
○ 공모 주제 (* 위 지원 분야 중 1개에 대해 제시 주제와 자유 주제 중 선택 지원)
1) 제시 주제
① 젊은이들의 종교 의식 변화 트렌드 연구 분석(메타 연구 포함)
② 현대 심리학의 접목을 통해 대중화할 수 있는 불교 수행 프로그램
③ 한국 청소년들의 정서 건강과 학업에 도움이 되는 명상 방법
④ 불교의 생명 존중과 환경
2) 자유 주제 :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
○ 지원금 : 1주제당 500만원 ~ 1,500만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제출 서류
① 지원서 1부(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제안서(A4 1p 분량)
2) 심사 절차
1단계(제안서 예비 심사) → 2단계(1단계 통과자, 계획서 발표 평가) → 3단계(종합 심사) → 4단계(대상자 선정)
3) 지원금 선정자는 연구비를 수령 후 2년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4) 접수
- 기간 : 2020년 4월 20일(월) ~ 5월 15일(금)까지
- 방법 : 이메일(kbpf2606@daum.net)
- 문의 전화 : 02-719-2606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0년 6월 초(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중국禪 대미 장식한 임제종 종파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⑥ 황룡파와 양기파



중국 강서성 평향 보통사 조사전. 달마대사를 중심으로 좌측은 스승인 석상초원, 우측이 양기방회의 진영이다. 양기파 개산조인 양기방회는 보통사서 선풍을 펼치다가 이곳에서 입적했다.

북송의 선종은 5가에서 7가로 발전되었다. 곧 5가 가운데 임제종에서 황룡파와 양기파로 분파되었다. 양기파의 방회는 강서성 평향 양기산에서 선풍을 전개했고, 황룡파의 혜남은 강서성 남창 황룡산에서 선풍을 전개했다. 황룡파는 황룡 혜남에서부터 허암회창(虛庵懷敞, ?~?)까지 단 8대 200여 년간 지속되다 단절되었다. 이후 양기파만 남아 임제종을 대표했다. 북송 후기에서 남송대로 접어들어 선종은 이미 임제종 천하였고 조동종이 겨우 연명하고 있는 '임천하동일우(臨天下洞一隅)' 였다.

양기파는 송 · 원 · 명 · 청대에까지 가장 번성한 선종 종파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 일본 선종도 양기파의 선풍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 실증적인 사례의 하나로 청나라 강희 연간에 발간된 섭선(聶先) 스님이 저술한 〈속지월록〉에 모두 710명의 선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 470명이 양기파 선사들이고, 나머지 240명이 위앙종 · 조동종 · 운문종 · 법안종 · 황룡파 선사들이다. 곧 양기파의 선사들이 중국선의 대미(大尾)를 이루었다. 여기서 황룡파 · 양기파 개산조(開山祖)들의 행적을 보자.

북송 선종 5가서 7가로 발전해
황룡혜남 · 양기방희 선사 개산
임제종 황룡 · 양기파 선풍 융성
한국 · 일본 선종에도 영향 미쳐

황룡 혜남

황룡 혜남(黃龍慧南, 1002~1069)은 강서성 신주(현 상요) 출신이다. 강서성 남창 황룡산(黃龍山)에서 임제의 선풍을 전개했다. 혜남은 황룡파 개조이며, 1110년 송나라 휘종(徽宗, 재위 1100~1125)에게 '보각선사(普覺禪師)' 라는 시호를 받았다.

11세에 신주 회옥사에서 지란을 의지해 출가해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그 뒤 여산 귀종사와 서현사 등지에서 수행하고, 운문종의 늑담 회징(泐潭懷澄, ?~?)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어서 임제종 문열(文悅, 998~1062)의 권유로 형악(衡岳) 복엄사(福嚴寺)에 주석하고 있는 석상 초원(石霜楚圓, 986~1039) 문하에 들어갔다. 혜남이 초원에게 인사를 하자, 초원이 말했다.

"그대가 운문의 선을 배웠으니 반드시 그 뜻을 얻었을 것이다. 동산의 세 차례 몽둥이는 때려야 하느냐, 때리지 않아야 하느냐?"

"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까마귀 울고 까치가 울어도 모두 몽둥이를 맞아야겠구나. (잠시 침묵 후에) 조주선사가 오대산의 노파를 내 이미 간파했다고 하는데, 조주는 무엇을 간파했는가?"

혜남은 초원의 질문에 쩔쩔매매 답을 못했다. 이튿날, 혜남이 스승에게 가르침을 청하자, 초원은 쉬지 않고 욕을 퍼부었다. 혜남이 말했다. "사람에게 욕하는 것도 자비입니까?"

혜남의 말에 초원이 반문했다. "너도 욕을 할 수 있느냐?"

혜남은 스승과의 법거량으로 깨닫고, 게송을 지어 바쳤다.

"총림에서 걸출한 조주여! / 노파를 간파함은 유래가 없는 일이로다./ 지금 사해가 거울처럼 맑으니, / 행인은 길과 더불어 원수되지 말지니라."

– 송대 혜방의 〈송고 38수〉

이후 혜남은 강서성 홍주(洪州, 현 남창) 봉서사, 황벽산 적취암 등에 머물다가 1036년, 34세에 황룡산 숭은원(崇恩院)에서 선풍을 진작했다. 이곳에서 조심 · 극문 · 상총 등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본성을 깨닫는 지점까지 몇 개의 관문을 통과하는 선풍이 있다. 삼관(三關)이라고 하는데, 스승이 선자를 접인할 때, 제시하는 세 가지 관문으로서 학인의 공부를 점검하고 참구케 하는 것이다. 마치 관문을 지키고 서 있는 무서운 수문장처럼 이 문을 통과하라고 소리치는 것이다. 혜남도 선자를 지도할 때 삼관을 활용했는데, 이를 '황룡삼관(黃龍三關)' 이라고 한다. 혜남은 찾아온 학인들을 만날 때마다 출신 고향과 출가한 연유를 물은 뒤, 다음 세 가지를 질문하였다.

① 사람마다 태어난 인연이 있는데, 그대가 태어난 인연은 무엇인가?

② 내 손이 어찌 부처님 손과 닮았다고 할 수 있는가?

③ 내 다리가 어째서 당나귀 다리와 닮았는가?

태어난 인연(生緣) · 부처의 손(佛手) · 나귀의 다리(驢脚), 이 세 가지를 학인들에게 제시했다. 또한 혜남은 제자들에게 '진여연기설(眞如緣起說)' 을 강조하여 "아주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아(極小同大) 하나의 털끝에 부처의 세계가 나타나고(于一毫端現寶王刹), 아주 큰 것은 작은 것과 같아(極大同小)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넣을 수 있다(可納須彌山入芥子中)"는 법을 설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황룡파는 법맥이 끊겼으나 일본 임제종의 개조(開祖)인 에이사이(栄西, 1141~1215)에 의해 1191년 선법이 전해졌다.

혜남은 세납 68세로 입적했다. 저술로는 〈황룡혜남선사어록〉 〈황룡혜남선사어요〉 〈서척집〉 등이 전한다. 한편 그의 4대(황룡-조심-사심오신(死心悟新)-조종혜방(趙宗惠方))에 걸친 어록집인 〈황룡사가집(黃龍四家集)〉(1141)이 전한다.

양기 방회

양기 방회(楊崎方會, 996~1049)는 냉(冷) 씨로서 강서성 의춘(宜春) 사람이다. 원래 그는 지방 말단 관리였으나, 세속의 일들을 하찮다고 여기는 성품이었다. 방회는 20세에 출가해 처음 황룡 혜남 문하에서 수행했다. 스승이었던 혜남은 방회에 대해 늘 이렇게 말했다.

"기량이 두텁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늘 성실한 사람이다. 주위 승려들로부터 그는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내색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늘 한결같은 사람이다" 또한 "방회는 과묵하며 부드럽고 이치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평을 받았다.

얼마 후, 방회는 혜남 문하에서 나와 석상 초원을 찾아갔다. 초원을 스승으로 섬기며 그에게 가르침을 구했다. 어느 날, 방회가 스승 초원에게 도를 물으니, 초원이 말했다.

"절의 일이 많아 그대가 할 일이 많으니, 얼른 가보시게"

또 며칠 후, 방회가 스승 초원에게 가르침을 구하자, 초원이 대답했다. "훗날 자네 문하에 천하의 제자들이 모일 터인데, 왜 이리 급히 서두르는가?"

한번은 초원이 출타했다가 돌아오는 길녘에 방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스승이 나타나자마자, 스승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이 늙은이야, 오늘은 내게 가르침을 주지 않으면, 스승이고 뭐고 주먹으로 칠겁니다"

"네가 이렇게 알고자 노력하면서 쉬지 않고 물으면 된다."

방회가 스승의 말에 깨닫고, 그 자리에서 스승에게 절을 올렸다. 방회는 오랫동안 초원 문하에 머물며, 수행하였다. 이후 방회는 자신의 고향인 강서성 평향(萍鄕) 양기산(楊崎山) 보통사(普通寺)에서 개당 설법을 하고, 선풍을 전개했다.

당시 방회 문하에 수많은 납자들이 모여 대중을 이루어 방사가 부족한데도 방회는 불사에 관심이 없었다. 대선사가 머물던 사찰인데도 비가 오면 새고 눈이 오면 눈 피해가 컸다. 당시 폭설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당우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한 제자가 '당우를 불사해야 한다.' 고 간곡히 청했으나 방회는 '불사 같은 일은 번거로운 것' 이라며, 다음 시게를 읊었다.

"양기산의 허름한 거처, 지붕과 벽이 엉성하니 방바닥 가득 뿌려진 눈의 구슬들! 목 움츠리고 가만히 탄식하며 생각하노니, 나무 밑에 거처하신 노숙(老宿)"

방회의 다른 모습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스승 초원의 기일 날,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 방회는 초원의 진영 앞에서 두 손을 들어 일원상을 그렸다. 그리고 향을 사른 후에 뒤로 물러나 절하는 모습이 마치 아녀자 같았다.-〈고존숙어요(古尊宿語要)〉" 스님의 선비 같은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본다.

황룡파 혜남의 제자인 각범 혜홍과 도솔 종열이 활약하면서 황룡파가 매우 융성했다. 특히 황룡파 선사들은 사대부들과 인연이 깊었다. 그런데 차츰 황룡파에서 양기파의 선풍으로 옮겨갔다. 방회의 법을 이은 제자는 백운 수단(白雲守端, 1025~1072)을 비롯해 수단 이후 걸출한 선사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신자들 중에 관료출신들이 많았는데, 양기파 승려들이 사회적인 활동에 무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기파 승려들 중에는 사천성四川省 출신과 절강성浙江省 출신들이 많았다. 양기파 선종은 사천불교나 절강 방면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양기파 법맥은 곧 우리나라 조계종의 역사이다. 한국의 승려들은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이 주류인데, 이 간화선의 주창자가 바로 양기 방회의 5세손인 대혜종고(1089~1163)이다. 또한 고려 말기 태고 보우는 석옥 청공(1272~1352)으로부터 법을 얻었는데, 청공은 양기 방회의 12세손에 해당한다.(임제의현-양기방회-대혜종고-석옥청공-태고보우)

앞의 혜남과 제자들의 어록집인 〈황룡사가집〉(1153)이 있듯이 방회 문하에도 〈자명사가록〉이 전한다. 곧 자명초원-방회-백운 수단-오조 법연에 이르는 4대의 어록이다. 양파에서 사가어록이 편집된 점을 볼 때, 이 무렵 선종마다 법계의식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사가록으로는 마조-백장-황벽-임제에 이르는 〈마조사가록〉(1085)이 전하며, 운문종에서도 덕산-암두전활-설봉의존-현사사비의 어록을 모은 〈덕산사가록〉이 전한다.(〈덕산사가록〉은 각범 혜홍의 〈임간록(林間錄)〉에 이름만 전함)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에너지 파동 성명학
창업·지도자반 모집

■ 이름으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 이름만 듣고 운명을 말해주면 신비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는 말소리에 따라 각기 다른 파장의 에너지가 발생 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는 순간 파장을 타고 널리 퍼져 나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같은 소리지만 어떤 소리는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소리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는 소리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어떤 에너지의 힘 때문입니다. 즉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판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 입니다. 소리파장으로 부르는 이름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작명. 개명. 법명. 호. 회사이름. 상호. 각종번호. 집 주소. 핸드폰번호. 차량번호에 따라 소리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과 회사명을 개명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만족해합니다.
힘들 때 이름을 바꿔보세요.

서울
서울동국대 미래융합대학
1. 에너지 성명학 : 9월 개강
2. 융합명상가족세우기 : 9월 개강

천안
접수처 : 천안시 동남구 청수3길 37호 학마을 명상선원
성명학 수시모집 : 010-8634-7851
융합명상과 내면의 고민 치유(가족세우기)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 일요일 오후 5시까지

부산
접수처 :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26-16번지
학마을 명상선원
지하철 : 남천역 2,4번출구
성명학 수시모집 : 010-5515-0918(간사)
융합명상과 내면의 고민 치유(가족세우기)
둘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 일요일 오후 5시까지

에너지 파동 성명학회장 **도윤(정행)** 스님

실패없는 염불 시설을 하실려면!

오직 비교! 반 식자들의 그 어떤 말도 믿지말고 본사의 간단 견본으로 귀 법당의 시설과 소리비교 염불시 놀라운 수준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것을 정확하게 확인 후 귀 법당 시설의 절반가에 시설상담 할부가능

장점 : 1. 초간편시설 2. 앰프다루기 1초 3. 고장없음

방문시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2천여 시설 명단제공

방문인은 소리의 명인으로 보이스커리큘럼 : 음폭, 음량, 음질, 음색, 고저, 강약,
고음바이브레이션테크닉, 교정 조언

본품은 본사의 염불전문용 개발품으로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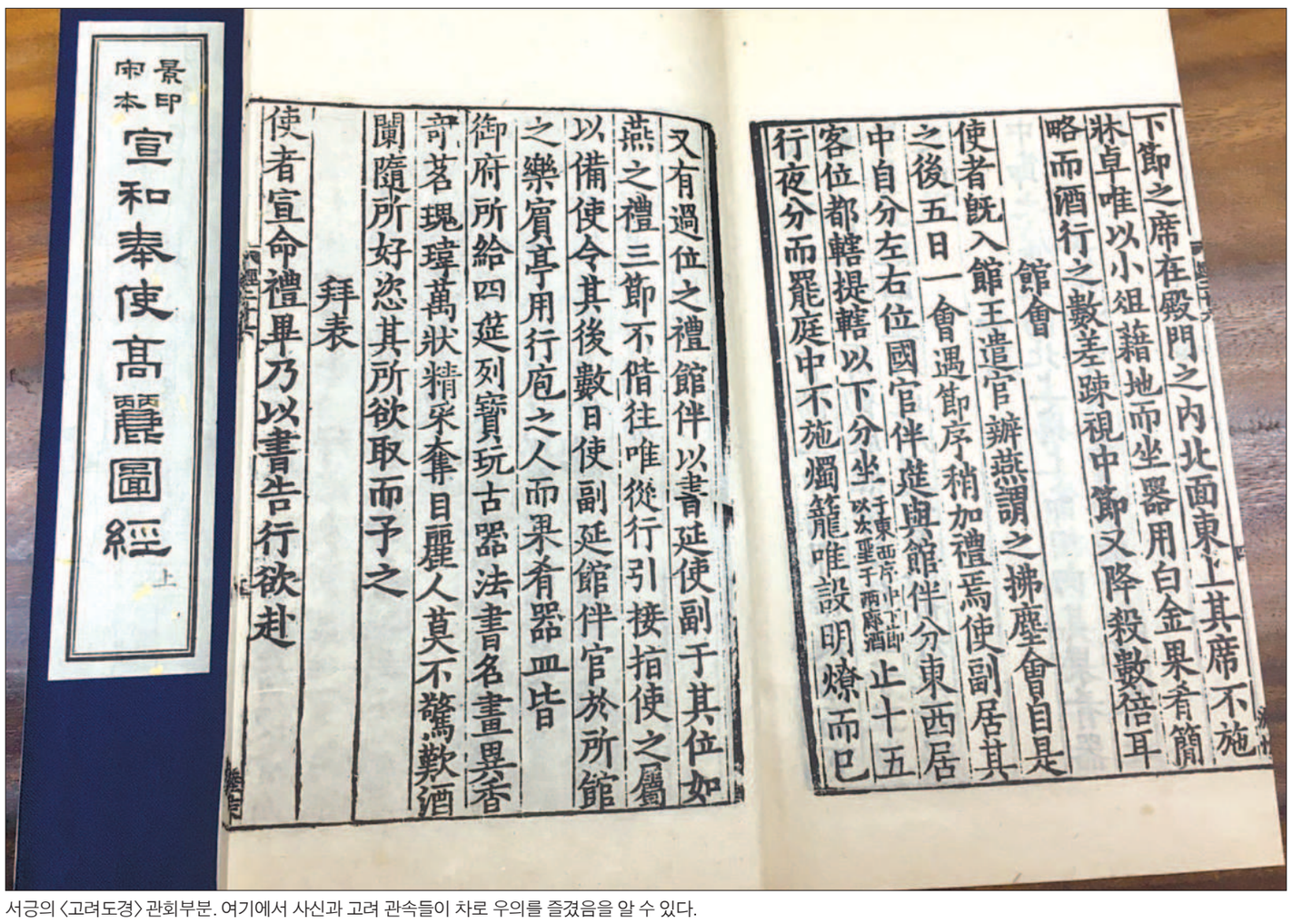
▣ **마이크소리 구경 조건으로 신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茶 관심 높은 宋, 고려에 영향



박동춘의
고려 茶 문화, 그 아름다움

⑥ 고려왕실 전해진 용봉차



서긍의 〈고려도경〉 관회부분. 여기에서 사신과 고려 관속들이 차로 우의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차 문화의 융성은 좋은 차를 생산할 인력 및 찻그릇의 생산기반이 갖춰진 것 외에도 관료 문인들의 차 애호에서 기인했다. 특히 문인들은 차를 즐긴 여운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켜 차 문화의 토양을 한층 풍성하게 만든 자양분을 공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구법승들이 중국을 왕래하며 당송의 발전된 차 문화의 흐름을 소개함으로써 고려의 차 문화는 송나라와 대등한 문화를 구가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송 황실이 보낸 황제용 어차(御茶)는 고려 차의 품질이 더욱 고급화되고 정밀할 수 있었던 자극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시대 차 문화는 송이 향유했던 새로운 음다 문화를 구가하며 융성한 차 문화를 실현했다.

고려 차의 향상에 자극제가 되었던 용봉차는 11세기 송 황제가 고려 왕실에 보낸 최고품의 차였다. 이런 사실은 〈고려사〉 '세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내용은 이렇다.

문종 32년 6월 정묘에 태자를 순천관에 보내 송나라 사신을 인도하여 오게 하였다.…따로 보낸 용봉차가 10근인데, 한 근씩 금으로 도금한 은죽절합자에 넣어 명금오채로 장식하고 요화판 붉은색 칠을 한 갑에 담아 붉은 꽃무늬비단 겹보로 각각 쌌다. 용차가 5근이고 봉차가 5근이었다.(文宗 32年 六月丁卯 命太子詣順天館導宋使…別賜龍鳳茶一十斤 每斤用金鍍銀竹節 合子 明金五綵 裝腰花板朱漆匣盛 紅花羅夾帕複 龍五斤鳳五斤)

윗글에 따르면, 문종 32년(1078)에 송 황제가 용차 10근, 봉차 10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용봉차는 흔히 용봉단차라 부른다. 용단은 황제용 차이며 봉단은 왕자, 공주 등 귀족용 차이다. 용봉차는 연고차(硏膏茶)의 일종이다. 북송 때 정위(丁謂, 966~1037)가 대용봉단(大龍鳳團)을 만들어 황제에게 올린 후, 복건전운사(福建轉運使)였던 채양(蔡襄, 1012~1067)이 소용봉단을 만들어 명차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이는 건안 지역에서 생산된 차였다. 이로부터 건안은 최고의 명차 산지로 부상하였다. 제다의 원리에 밝은 정위와 채양은 대소용봉차를 만들어 높은 지위를 올랐고, 천하는 용봉단이라는 명차를 얻게 되었다. 당시 용봉단에 대한 문인들의 흠모는 대단하였으니 이는 구양수(歐陽脩, 1007~1072)의 〈귀전록(歸田錄)〉에 나타난다. 용봉단차에 대한 당시의 인식과 그의 찬탄은 아래와 같다.

차의 품질은 용봉보다 귀한 것이 없다. 이를 단차라 부른다. 무릇 8병이 한 근이다. 경력(송 인종, 1041~1048) 때, 채군모가 처음으로 소편 용차를 만들어 올렸는데 그 품질이 정밀하고 뛰어나 소단이라 하였다. 무릇 20병이 1근이며 그 값은 금 2냥에 해당된다. 그러나 금은 얻을 수 있지만 차는 얻을 수가 없다. 매번 남교에 재를 올림에 따라 서중과 추밀원에 각 일병을 하사하시니 네 사람이 나눴다. 궁인이 금으로 용봉을 화려하게 오려, 차를 장식했으니 대개 그 귀하고 중함이 이와 같다.(茶之品 莫貴於龍鳳 謂之團茶 凡八餠重一斤 慶曆中蔡君謨 始造小片龍茶以進 其品絕精 謂之小團 凡二十餠重一斤 其價值金二兩 然 金可有而茶不可得 每因南郊致齋 中書樞密院各賜一餠 四人分之 宮人翦金為龍鳳花貼其上 蓋其貴重如此)

윗글에 따르면, 구양수가 처음 언급한 단차는 바로 대용봉단을 말한 것이다. 정위가 처음으로 대용봉단차를 만들었는데, 이는 당시 세상에 나온 모든 차 중에 가장 진귀한 차였다. 왜 그런 인식이 생겼는가 하면 대용봉단차는 연고차(硏膏茶)였기 때문인데, 당시로서는 가장 정밀한 제다 공정을 거친 신기원의 차였다. 연고차의 공정 과정은 시루에 찐 찻잎을 절구에 찧어낸 후, 다시 연(硏)에 넣고 미세한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 틀에서 찍어낸 차이다. 용단은 바로 용의 문양이 찍힌 차이며 봉단차는 봉황의 무늬를 박아 넣었기 때문이 붙은 이름이다. 그런데 대용봉단차의 단위는 근이며 한 근이 8덩이로 구성되었는데, 이 차를 만든 사람은 정위(丁謂)이다. 그는 대용봉단을

황제용 어차(御茶)의 전파
가문의 영광으로 받아들여
제다법이 보다 세밀해지며
고려의 차문화 발달 이끌어

황제에게 진상된 후, 후한 상을 받았다.

대용봉단차보다 더욱더 세밀하고 귀한 차는 소용단차이다. 이 차는 송 인종(1041~1048) 때 '채군모(채양의 자)가 소편을 용차를 만들었다' 는 것인데, 이를 소용단이라고도 부른다. 이 차의 단위는 한 근이 20덩이다. 차의 품질이 어찌나 섬세하고 뛰어났던지, 세상에서 소용단과 견줄 수 있는 차는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귀한 최상의 황제용 차였다. 그러므로 구양수는 '소용단 한 근은 금 2냥에 해당될 정도로 값이 비싼 차이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차가 아니라' 고 한 것이다.

당시 소용단이 얼마나 귀한 차였는지는 다시 구양수의 증언을 들어보자. 그는 '매번 남교에 재를 올림에 따라 서중과 추밀원에 각 한 덩이를 하사하시니 4사람이 나눴다. 궁인이 금으로 용봉을 화려하게 오려 차 위에 장식했다' 고 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소용단 한 덩이를 네 사람으로 나눴으니 이 차를 받은 신하는 황제의 신임을 인정한 증표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소용단차는 가문의 영광을 증명하는 것이며 황제의 신임을 확인하는 상징물일 뿐 감히 즐길 수 있는 차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용봉단차를 고려 왕실에 보낸 황제는 신종이었다. 당시 용봉차의 단위는 한 근이 20덩이였으니 용차 100덩이와 봉차 100덩이를 고려 문종에게 보낸 것이다. 그런데 송 희령(熙寧, 신종 연호 1068~1077)년간은 새로 제다법(製茶法)으로 만든 고급 차들이 세상에 알려진 시기이다. 희령년간 이후에 처음으로 밀운용이 황실에 공납되었는데, 이 차는 소용단보다 훨씬 섬세하고 진귀한 차였고, 매해 두강 같은 진품이 출현했던 시기도 신종(神宗) 연간이다. 11세기는 중국 차 문화사에서 가장 격조 있는 차품이 풍자되던 시기인데 11세기 말부터 고려에서는 뇌원차(腦原茶), 대차(大茶) 등이 생산되었다. 대차는 단차 종류로 추정되며 뇌원차가 소용봉단 같은 종류라 생각한다.

송나라에서 고려 왕실에 용봉단을 보낸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바로 예종 12년(1117)에도 차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고려사절요〉에 "송 황제가 계향어주와 용봉명단을 보냈다(宋帝所賜 桂香御酒龍鳳茗團)"고 한 것이 그것이다. 당시 차를 보낸 황제는 휘종(徽宗, 1082~1135)이었다. 휘종은 북송의 마지막 황제이다. 차에 깊은 심미안을 가진 그는 황제였지만 차의 이론서인 〈대관다론(大觀茶論)〉을 서술한다. 그런데 휘종은 백차(白茶)의 전성시대를 연 황제였고, 차를 예술로 승화시킨 차 애호가였다. 깊이 있는 차의 감식안은 육우의 풍모를 이어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차 문화사에서 육우와 쌍벽을 이룬 인물은 바로 휘종이라 하겠다.

고품격의 차 예술로 승화시킨 휘종도 고려에 차를 보내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서긍(徐兢, 1091~1153)의 〈고려도경〉에서 드러난다. 당시 사신으로 파견된 서긍은 제할인선예물관이라는 직책으로, 개경을 방문하였다가 송으로 귀국한 후 그간의 경과와 고려의 전반적인 정황을 서술하여 휘종에게 보고를 올렸다. 당시 그가 올린 사행보고서가 〈선화봉사고려도경〉이다.

속칭 〈고려도경〉이라고도 불리는 이 문서는 고려의 문화, 풍습, 궁중, 전각, 관료, 사찰, 승려 등 전반적인 고려의 실상을 기록한 것인데, 그가 사신으로 파견된 것은 고려 인종 때의 일이다. 당시 북송은 북쪽으로 요와 금에게 위협을 받았고 서남쪽으로는 서하(西夏)가 위협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므로 휘종은 고려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화년간(휘종, 1111~1117)에 고려를 요와 대등하게 국신(國信) 수준으로 높였고 고려의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폈다.

한편 12세기 고려 왕실에서 행해진 음다 풍속을 살펴보면, 〈고려도경〉 '관사(館舍)' 에 "정사는 여유가 있는 날에는 늘 그 (향림정)에서 상절 관속들과 차를 마시며 바둑을 두며 종일 담소를 나눴다. 이는 마음과 눈을 유쾌하게 하며 더위를 물리치는 방편이었다"고 하였다. 당시 사신들과 고려의 관속들은 서로의 우의를 다지는 방편으로 차를 즐겼다. 그리고 고려 관속들이 송의 전반적인 문화 경향이나 수준은 사신들에게 베푼 연회에서 그 흐름을 엿 볼 수 있는 기회였음도 드러난다. 이런 사실은 〈고려도경〉 '관회(館會)' 에서 확인된다. 〈관회〉의 내용은 이렇다.

사방에 보배로운 기물(寶玩), 골동 그릇(古器), 법서(法書), 이름난 그림(名畵), 기인한 향(異香), 기인한 차(奇茗)를 늘어놓았는데, 아름다움 모양과 진귀함이 눈길을 끌어 고려인 중에는 경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 좋아하는 것들을 원하는 대로 집어 주었다.(列寶玩古器法書名畵異香奇茗 瑰瑋萬狀精采 奪目麗人莫不驚歎 酒闌隨所好恣 其所欲取而予之)

윗글에 따르면, 관사에서 연회를 열 때 사신을 접대하는 관반이 서신을 보내 송나라 정사와 부사를 초청하여 대접하였다고 한다. 낙빈정에 초청된 중국 사신들은 송나라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늘어놓고 연회를 베풀었다. 당시 사신들은 북송에서 가져온 기이한 차는 고려 관속의 관심을 고조시켰던 듯하다. 이를 통해 고려 관속들의 신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기인한 송나라 차에 관한 관심이 결국 고려 차를 발전시킨 동력이었음을 나타낸 사료라 하겠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우리 모두 마음에 있는 '三身佛'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⑪ 삼신불(三身佛)

대덕들이여, 삼계(三界)는 편치 못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오래 머물러 있을 곳이 못 된다. 무상이라는 죽음의 귀신이 한순간에 귀천(貴賤)과 노소(老少)를 가리지 않고 목숨을 빼앗는다.

여러분들이 조사의 부처와 다르지 않은 경지를 바란다면 밖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에 갖춰진 청정한 광명이 여러분 각자의 법신불이다. 여러분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에 갖춰진 분별없는 광명이 여러분 각자의 보신불이다. 여러분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에 갖춰진 차별 없는 광명이 여러분 각자의 화신불이다. 이 세 가지 부처의 몸은 바로 지금 나의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다. 다만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공용(功用)이 있는 것이다.

경론을 의거하여 공부하는 이들은 세 가지 부처 몸을 취하여 최고의 법으로 삼으나 산승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다. 이 세 가지 부처의 몸이란 이름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세 가지 의지처일 뿐이다. 옛사람들은 말했다.

"부처의 몸은 뜻에 의지해 세운 것이고 불국토는 법성의 본체의 의지해 논한 것이다"고 하였다. 법성의 부처 몸과 법성의 불국토는 자기 성품의 그림자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어느 날 임제는 대중을 향해 법문을 하면서 이 세상이 '불타는 집'이라는 〈법화경〉 속 화택(火宅)의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다. 불난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 빨리 나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불교의 근본 사상을 해탈 사상이라고 말한다. 특히 선에서는 생사(生死)해탈이라는 말을 즐겨 써 왔다. 깨달음을 얻으면 생사를 물리친다고 하였다. 생사를 대적(對敵)한다는 말은 선어록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부처와 중생을 생사의 경계를 가지고 구분해 생사가 있는 것은 중생이고 생사가 없는 것을 부처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생사라는 것이 기실 부처의 그림자다. 빛은 본래 그림자가 없지만 어떤 물체가 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마음에 본래 갖춰진 광명이 바로 부처의 세 가지 몸이라고 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처는 내 안에 있다고 했다. 밖을 향하여 찾아보아야 헛일이라는 것이다. 임제는 항상 이점을 강조한다. 임제뿐만 아니라 중국 선종의 조사들은 '마음이 부처'임을 강조한다. 이 말이 선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직설(直說)이다. 중국불교 특히 선불교는 직관(直觀)을 중시한다. 사변적인 사유체계를 거부해 왔다. 논리적 이론을 곡담(曲談)이라고 은연중 무시했다. 오직 마음이 부처이므로 부처를 찾는 것은 마음을 찾는 것이라고 천명해 오면서 참구(參究)해야만 한다고 했다. 부사대의 〈심왕명〉에도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이다. 마음을 떠나면 부처가 없고 부처를 떠나면 마음이 없다"고 하였다.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있을까?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이고 선불교가 직관이기 때문이다. 즉심즉불(卽心卽佛), 이는 자기 정체를 확인하게 하는 최고의 말이다. 물론 이 말도 말을 떠난 말이기 때문에 마조의 어록에는 반대의 말인 비심비불(非心非佛)이라는 말도 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표현되었지만 이 역시 조사(祖師)의 경지에서는 즉심즉불(卽心卽佛)이다.

임제는 부처의 세 가지 몸이 모두 마음에 갖춰진 밝은 광명이라 하였다. 청정한 광명, 분별없는 광명, 차별 없는 광명이 법신이요, 보신이요, 화신이라 하였다. 오래 있을 곳이 못 되는 이 세상의 무상한 경계를 빨리 뛰어넘자 하였다. 객관 경계를 의식해 만드는 관념적인 생각이 때로는 미혹을 조장하는 수가 있음을 지적, 삼신불을 개념적으로 보지 말 것을 대중에게 주문하고 있다.

마음을 광명이라고 표현한 말은 경전에도 나온다. 〈화엄경〉에 "보살은 언제나 마음의 광명으로써 보살행을 한다"고 하였다. 광명은 어둠이 아닌 밝음이다. 그런데 중생은 마음의 광명이 차단되어 무명(無明) 심지(心地)에 터를 잡아 탐(貪), 진(嗔), 치(痴) 삼독(三毒)의 뿌리가 심어져 있는 것이다.

〈조계종 고시원장〉

겨자씨에 우주 담는 '수릉엄삼매'



세상 속 경전읽기

⑪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

오래전 아직 해외나들이가 쉽지 않았던 때에, 세계 무전(無錢)여행을 다니고, 세계여행기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분의 이야기 한토막이다.

당시는 한국이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나라였다. 그 여행가가 유럽의 한 나라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코리아'를 아느냐고 묻자, 한 초등학생이 안다고 손을 들었다. 교단 앞으로 불러내어 지구의에서 코리아를 가리켜보라고 하자, 지구의를 몇 번이나 돌려가면서 찾다가 겨우 한반도를 찾아 가리켰다. 그런데도 그 여행가는 한국과 먼 나라의 어린이가 코리아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명을 받아 눈물이 핑 돌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남침으로 전란을 겪고, 끼니도 수시로 거르며 해외원조로 연명하는 후진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했다. 이제 한국을 모르는 세계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코리아를 모르는 해외 어린이가 있어 코리아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 어린이는 휴대폰을 켜고 구글맵을 열어 쉽사리 한국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작은 휴대폰 속에는 세계지도 뿐 아니라 은하계를 비롯한 온갖 것이 다 들어 있다.

5세기 초 중국의 요진(姚秦) 때, 구자국(龜玆國) 출신의 학승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수릉엄삼매경(首楞嚴三昧經)〉은 부처가 견의보살(堅意菩薩)의 청에 따라 수릉엄삼매를 얻는 방법과 그 삼매의 불가사의한 힘에 대해 설한 경이다. 〈수릉엄삼매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보살이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를 얻으면, 능히 삼천대천세계로 하여금 겨자씨 속에 들게 하여, 모든 산과 강, 해와 달, 별 등이 모두 드러나게 하되, 원래와 같이 전혀 비좁지 않게 모든 중생들에게 보여주나니, 견의(堅意)여! 수릉엄삼매의 불가사의한 힘이 이와 같으니라."

〈首楞嚴三昧經 T0642_.15.0635c25-29〉

수릉엄삼매를 얻은 이는 온 우주를 겨자씨 속에 넣을 수 있다. 무량한 크기의 우주가 좁은 겨자씨 속에 넉넉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중생들에게 원래 모습 그대로인 (겨자씨 속의) 온 우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전이 설해질 당시에는 잘 믿기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웠을 수릉엄삼매의 불가사의한 힘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잠시도 놓지 못하는 현대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더구나 요즈음은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작은 휴대폰도 나오니 앞으로 겨자씨만한 휴대폰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수릉엄삼매는 건상삼매(健相三昧)·견고삼매(堅固三昧) 등으로 뜻번역 된다. 다부지고 굳세어 번뇌를 부수어 버리는 삼매로, 모든 붓다 및 10지보살(十地菩薩) 소득(所得)의 정(定, 삼매)이다. 수릉엄삼매를 얻으면 장군이 군대를 이끌어 적을 무찔러 항복받는 것처럼 번뇌의 마군을 파멸(破滅)시킬 수 있다.

이 정(定)은 백팔(百八)삼매 가운데 으뜸인 삼매이다. 요즈음 표현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의미하는 웰빙이나, '건강과 지속성의 삶'을 의미하는 로하스[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와 뜻이 통한다. 곧 웰빙은 건상(健相, 건강)삼매이고, 로하스는 건상(健相, 건강)을 지속하는 건행(健行, 건강의 지속)삼매로, 음사(音寫)로는 수릉엄삼매이다.

"무엇을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라 하느냐? 모든 삼매를 다 꿰뚫어 아나니, 이것을 수릉엄삼매라 하느니라."

〈大智度論 T1509_.25.0396c29-0397a01〉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⑰ 이해의 길 37

달마의 일갈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1989년 배용균 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불교 영화다. 뛰어난 작품성과 아름다운 화면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호평이 쏟아진 작품이다. 지난해에는 '한국영화 100년사 10선(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영화는 한 동자승의 눈을 통해 삶과 죽음, 세속적 욕망과 깨달음의 세계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영화 제목이 선불교에서는 수행자를 향해 던지는 날 선 질문과 같다. 불교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수행하면서 깨달은 소식이 있으면 내놓으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자칫 본인의 밑천이 모두 드러날 수 있는 공격적인 질문이다. 선어록에는 질문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을 몽둥이로 때리거나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들이 가끔 등장한다. 때로는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기도 한다. 어떤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 선문답과 같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본래 이 질문은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즉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달마조사가 서쪽인 인도에서 동쪽인 중국으로 선불교를 전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선학의 황금시대〉의 저자인 오경웅(吳經熊)은 서론에서 "선불교는 인도적인 아버지와 중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닮았다."고 하였다. 그만큼 선불교에서 중국 도가사상의 분위기가 많이 느껴진다는 뜻이다. 중국인들이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도가를 통한 격의(格義)의 방법을 사용했던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달마가 중국에 왔을 때는 천태와 화엄 등의 교학불교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당시 종파 간에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 교학이나 각 종파에서 중시하는 경전은 붓다의 깨침을 설명하는 체계로써 의미를 가진다. 즉, 깨침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화엄경〉이나 〈법화경〉 등의 표현된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종파 간의 경쟁이 도를 넘으면서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깨침인 달을 보아야 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標月之指)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당시 달마의 눈에 비친 중국불교의 실상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달마는 먼저 수단에 집착하고 있는 교학불교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것이 유명한 선의 사구게(四句偈) 가운데 전반부 내용이다. 교(敎) 이외에 따로 전하는 것이 있는데(敎外別傳), 그것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不立文字)는 것이다. 불교의 진리, 붓다의 깨침은 언어로 표현된 교학이 아니라 이심전심(以心傳心),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전승되었다는 뜻이다. 파격도 이런 파격이 있을 수 없다. 이는 달이 아니라 손가락에 집착하고 있던 교학불교를 향한 사자후였다.

달마는 당시의 불교계를 향해 비판과 더불어 대안도 제시하였다. 그것이 사구게의 후반부인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直指人心),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見性成佛)는 내용이다.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에서 시선을 떼고 직접 달을 보라는 뜻이다. 새로운 불교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선불교의 입장에서 달을 가리키는 수단은 손가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나 붓, 빗자루 등 수없이 많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손가락에 머무는 한 달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수단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달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달을 보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잘라버리는 것이 선의 정신이다. 이 과격함 속에 담긴 '무엇이 중헌디?'라는 본질적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선(禪)은 불교의 생명과도 같은 문제의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행해졌던 불교탄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사찰이나 불상, 경전 등과 같은 격식(格) 바깥(外)에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 실천적인 선불교가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해서 오늘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영가 찾는법

연결카페 : 백암역리원
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는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매사에 장애, 신경성, 우울증, 공부가 안되는 학생, 결혼이 안되거나 가정의 풍파, 병명이 안나올 때는 영가의 작용으로 불 수 있다.

대 상
명리 및 육효초보반, 영가특강반

백암역리원
02)597-1101
2,4호선 사당역 8,9번 출구 먹자거리 골목 안 200m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장림사
• 주 지 : 성 각 (속명 : 최용태)
• 주 소 : 경북 경산시 임당동 577-2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대한불교일련종 총무원장 법하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국가적 위기, 이타심이 극복 방안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⑥ 코로나 상황서의 사회적 기여



6-1 안개가 짙게 깔린 강에서 배들이 부딪칩니다. 강 위쪽과 강 아래쪽에서 부딪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위쪽에서는고함 소리가 들리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은 가끔 쿵하며 부딪치는 소리가 들리지만 조용합니다. 똑같이 배들이 부딪쳤는데 강 위쪽과 아래쪽에서 벌어진 차이는 무엇때문일까요? 안개가 옅어지면서 진상이 드러납니다. 위쪽 배들에는 사공이 타고 있었고 아래쪽 배들은 빈 배였습니다. 배가 충돌한 상황은 같은데 사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반응은 천지차이군요.

위쪽 배들은 사공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며 상대의 잘못을 비난하다가 급기야 화를 못참고 삿대를 들어 위협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삿대질한다' 는 말이 여기서 비롯되었군요(웃음). 말꼬투리를 잡고 싸움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공들은 자기 쪽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당성과 상대의 부당함을 강조합니다.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이 두 쪽으로 나뉘어 편싸움이 일어납니다. 편가르기도 여기서 시작되었군요(웃음). 좀체로 싸움이 진정되지 않더니 큰 마을로 번지다가 마침내 나라 전체가 두 쪽이 나 싸움에 휩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빈 배' 이야기를 각색해본 것입니다.

6-2 '코로나 블루' 란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감염자는 물론 비감염자도 분노와 우울, 불안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중국과 일본을 탓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탓(투사)하기와 눈치보기를 일삼습니다. 인류의 오래된 습관으로 굳어진 무의식적 방어 방식이지요. 습관화된 마음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에고(몸과 마음의 주체)의 방어 기제는 자신에 대한 보호를 위해 나온 것이지만 자신에 대한 강력한 집착과 애착을 낳습니다. 자신에 대한 보호와 이기심이 지나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해치게 됩니다

눈을 감고 잠시 숙고해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타인과 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일들을 떠올려보세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관계가 모두 에고이즘-이기주의의 결과임을 보세요. 에고이즘은 정파적 종파적 민족적 국가적 이기주의로 발전하고, 자신이 신봉하는 신념에 대한 집착은 집단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처럼 수많은 생명을 살상하는 전쟁으로 되었음을 돌아보십시오.(1-2분)

6-3 이렇게 에고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행동은 부정적인 카르마(업)로 무의식에 저장되어 현재와 미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무의식에 입력되면 맘(의식 수준)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무의식에 입력된 카르마는 반복적으로 현실에 등장하곤 합니다. 부정적인 습관인 줄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성향들이 그것입니다. 에고를 애지중지하는 한, 에고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카르마(온갖 부정적인 생각, 감정, 욕망, 행위들)는 모두 에고에 대한 집착과 애착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남에게 탓을 돌리는 모든 분쟁의 원인이 되지요. 에고이즘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하여 비난하고 삿대질하며 혐오감 적대감을 키워나가 마침내 살인까지 발전시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여 화를 참고 안으로 돌리면 우울증 화병이 되거나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처벌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6-4 이처럼 에고이즘(이기주의, 자기중심성)은 살아가면서 모든 불행과 장애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흡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전쟁도 세계대전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에고이즘을 해체시킬 강력한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이타심입니다. 붓다가 무아를 천명한 이유입니다. 이타심은 에고가 가짜 나이고 모든 존재와 연결된 존재라는 동체대비(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의 자비심입니다. 히틀러가 게르만 선민 사상으로 국민을 선동하여 유태인을 무차별 학살한 것도 민족적 에고이즘입니다. 그 독일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과 보호를 외치면서 난민 수용을 거부할 때에 외국 난민을 117만명이나 받아들인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자각한 결과이지요. 끊임없는

마음의 안정 먼저 찾고
사회적 고통 관조하면
부정적 카르마 제거돼

자기 반성과 사죄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자국의 이익만 도모하는 강대국들의 행동과 대조적입니다. 독일 국민의 고양된 의식은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여 깨달은 결과입니다.

6-5 '마음이 모든 행위의 주인이니 마음을 잘 보고 다스려라, 분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특정 종교적 가르침이 아닌 삶의 법칙입니다. 바다에는 거친 파도만이 아니라 잔잔한 파도도 있습니다. 분노나 욕망이나 원망같은 강렬한 감정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격한 파도가 가라앉으면 도로 본래의 잔잔한 바다가 되듯이. 명상의 가장 좋은 점은 격한 감정들을 장애물로 여기기보다 마음공부하기 좋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거친 파도가 되어 몰아칠 때에 호흡에 주의를 모으고 심호흡을 하면서 포효하는 감정을 바라보면 아무리 난폭한 감정일지라도 저절로 가라앉음을 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의 바다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보실까요?

마음이 편치 않고 들떠있거나 침체되어 있거나 할 때 호흡을 주시하고 호흡이 가지런하고 편안하게 쉬어질 때까지 호흡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하고 들이마시고 하나둘셋하고 내쉬며 잠깐 호흡의 끝을 느끼고 다시 하나둘셋 들이마시고 하나둘셋 내쉬고 잠깐 호흡의 틈새를 바라보세요.(1-2분)

파도의 격한 정도에 따라 시간이 걸리기도 하군요.

늘 호흡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6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그런 격랑에 휩쓸리게 되었는지 그 발생 과정을 숙고해볼 차례입니다. 대체로 감정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화로의 재 깊숙이 묻힌 불씨와 같습니다. 평소엔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바람이 불면 불씨가 되살아나 큰 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바람은 무엇이 있을까요? 에고의 비교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 기대나 평가가 배경에 있었는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대란 무엇인가요?

예상했던 것, 바랬던 것, 생각으로 자신이 원했던 그 무엇 아닌가요?

평가란 무언가요?

비교하여 우열을 재는 것, 비교하여 시비를 따지는 것, 비교하여 선악을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기준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기준은 이미 습득된 원칙이고 옳다고 굳게 믿는 신념 아닌가요?

그 신념은 어디서 생겨났나요?

부모님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종교적 원리와 오랜 전통의 신념 등 아닌가요? 내가 직접 터득한 깨달음이 아니라 듣고 배우고 반복 학습된 남의 지식 아닌가요?

신념은 모두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군요.

이렇게 탐구해 들어가는 게 숙고 명상입니다.(붓다는 이것을 택법각지擇法覺支라 하였지요.)

그래서 명상을 기존의 지식과 신념을 해체시키는 작업이라고 하지요. 강력한 해독제는 외부의 그 무엇이 아니라 빈 배처럼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응시하는 힘이군요. 그러나 해체 작업은 단순히 마음을 고요히 기라앉히고 통일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집중된 마음 상태에서 사유하고 숙고해보아야 됩니다.

6-7 고통의 발생 과정을 낱낱이 보기 위해서는 에고가 분별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좋아하여 집착하거나 싫어하여 배척하는 반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비슷한 상황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마음의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숙고와 성찰에 의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일상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일어나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냉대하지 않고 귀한 손님처럼 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무의식에 갇힌(억압된) 감정이 자유롭게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신치료의 핵심이고 통찰명상의 요체입니다.(통찰은 숙고에 이은 깨달음)

에고는 상처 받는 것에 대해 분노, 걱정, 두려움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반면, 본연의 마음(불성/신성)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자비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치유의 근원입니다. 자비로 충만한 마음을 갖춘다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인 부정적인 카르마는 정화될 것입니다. 비난과 탓하는 대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자신의 이익 대신 자신을 희생까지 하는 헌신을 택합니다. 살신성인이 의인이나 성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군요. 모두 몸 사리고 불안에 떨 때 불안을 무릅쓰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인 자원봉사자들이 그 예입니다. 마음의 본성이 발현된 거지요.

에고의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본성(불성)과 함께 하게 되군요. 쉽지 않다구요? (웃음)

안경에 손이 닿을 때마다 손자국이 남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카르마)이 되었다가 적합한 조건을 계기로 싹을 틔웁니다. 자신이 살면서 뿌린 씨앗(업業)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고 씨앗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양한 미래를 살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 을 안경 닦듯이 꾸준히 정화시켜야 합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점차 마음의 본성이 확고하게 되어 해묵은 습관은 점점 해체되고 뿌리 깊은 성향도 줄어들고 좋은 습관과 바른 성향이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격랑의 바다도 있지만 평화로운 바다 또한 우리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고향. 그 고요함과 평화로움에 깨어있으면 거짓된 자아(에고)에 대한 오래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고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본래의 고향에서 고요히 쉴 수 있습니다.

늘 지켜보는 마음을 견지하십시오.

〈한별정신건강병원장〉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85호 | 15 | 전면광고

마음을 잘 절제하고 게으름 없이 노력하며
주의 깊은 마음 관찰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 지혜로운 이는 홍수로도
휩쓸리지 않는 섬을 쌓은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전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금동아미타 삼존불 -양도-
(네이버검색)
부처골 지장선원
010-8585-4908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네이버에 위 책이름 또는 작가 '태산선사' '손재찬' '손도사'등을 꼭 한번 검색 • 구입해 보세요!!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문의 010-5270-8260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 수업료 : 5백만원 |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사찰화재 보험
• 목조건축물 OK!! •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디자인 명리학 수강생모집
운명을 디자인한다
지금까지 이런강의는 없었다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간명할 수 있는 신개념의 사주명리학
(기초부터 고급핵심이론까지 1년과정)
여기저기서 배워도 제대로 통변할수 없었는 분들 초보자, 스님, 무속인, 일반인 모두 환영
문의 운명디자인연구소 010-7328-0089

황토장뚜껑 판매점
- 1개 : 2만 5천원 3개이상 주문택배
- 판매점은 100개이상 주문생산
- 지장성모님 법당등록 설계

법당불 100만원, 가족불 50만원 무속인 사절, 불교보살만 접수
구비서류 : 등본, 사진, 이력서, 거래통장사본 준성직자 보살 처사님 승려고시함
회불대학 043-745-3332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길 155-28

입종 동참안내
부처님의정원 · 사암
포교원 · 선원 · 불교문화원
종단 · 단체 · 연합회
입종 동참바랍니다
한국불교 종무청
010-5412-8040 법광

"그곳에 가서 빌면 원하는대로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위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P.785에 있는 국가 기록 문사입니다. 이 사실을 2019년에 발견하여 우선 컨테이너기도실로 마련하였아오니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 성취 소원의 꿈을 이루십시오.
관련책자 (기도치료원리 그 바깥일들) 280쪽이 필요하시면 책값과 운송료포함, 20,000원입니다.
입금계좌: 우체국 611038-02-004763 농협 352-0943-7979-03 정보석
안내: 010-3557-2773, 010-2093-3385
여의 기도 대성지 도량 건립 발원자 드림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50년
하루에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비구 · 비구니스님 종도모집
- 준비서류 : 수계증및 법계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입종등록신청서(총무원비치)
- 승려증 발급, 수계증 발급
- 주지 임명장 발급



사단법인 참승조계종 010-5353-3936

남(男)·여(女)관계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영통도사 명진 -
010-4912-3544

인연을 찾습니다
정토마을을 함께 운영하실 분을 모십니다.
- 위치 : 경남 창영, 대지 : 453평
- 사찰등기 해드릴수 있습니다.
심우사
010-3753-7844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화제 "빨간 속옷"을 입으면 행운이 온다
"돈이 좋아하고, 따르는 속옷이 있습니다"
붉은악마(치우천왕)은 2002년도 우리나라 축구를 세계4강에 승리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치우천왕 유래에 따르면 그 옛날 '전염병'이 도질때 우리조상들은 '장승'의 모양으로 마을어귀에 세워 전염병을 막게 하였다. "운이 있는 사람과 운이 없는 사람을 일평생 비교하면 누가 더 큰 손해인가?"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 온 국민이 걱정이다. 좋은 운이 따르는 '치우천왕 빨간 속옷'을 비법으로 꼭 입으시어 나와 내 가족이 나쁜 운을 만나지 않게 되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돈도 들어오게 되고 건강하고 부자로 잘사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치우천왕 빨간속옷 2장 ~~10만원~~ ⇨ 5만원
Daum 카페에서 치우천왕 정담 을 검색하세요.
국민은행 324702-04-162923 예금주 : 배정민
상담전화 010-4500-8234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대구, 60세 이상)
010-3524-8930

부산 도심 산에있는 암자입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2168-2800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수 · 목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 문의 | 02-732-1520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2020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2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1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20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20년 3월 10일(화) ~ 9월 1일(화)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85호 | 16 | 전면광고

만약 법을 듣기를 좋아하여 싫증을 내지 않으면
불가사의한 법을 깨닫게 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광진불사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외
◎ 매가 : 13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매가 : 6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사찰 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김해 선암다리 5분거리
- 토지 : 260여평,법당,요사,종각
- 창건24년,시세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은)2억2천포함
- 위치 : 부산 신평 토지 5천여평
- 주거지역 1천여평 포함
- 가액 : 7억5천(은)3억3천포함

010-9906-3631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1동은 세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3269-1023

부산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지하철 1호선 범일역 입구, 자유도매시장, 평화도매시장
- 귀금속골목 입구(상권최고)
- 법당완비, 에어컨 주방시설 완비, 상담실 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4만원
- 시설비 는 조금만 받겠습니다.

010-9660-667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포교원안내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입구
- 5층건물중 3층, 40평, 방2개, 주방, 화장실2개
- 전세2천만, 월세 40만, 시설비1천5백만
- 삼존불(소불104위)에어컨일체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010-8503-5769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입구
- 2.3층 30평씩 2층법당 3층공양간
- 보증금1천5백 / 월57만
- 시설비, 영상통화 절충

010-8339-5525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 보증금 1천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 3천 5백만원

010-8424-004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용동
- 대지 100평
- 법당 20평(2층)
- 1층 28평, 방3개, 화장실
- 가액 : 2억 3천만원

010-8611- 7568

도심속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앞산밑
- 대지 200평, 법당 40평, 방 2(각방 화장실비치)
- 종무소, 공양간 10평, 실외화장실 남, 여,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무료

010-3422-3232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2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40평, 산신각 10평
- 권리금 : 6천만원
- 사찰만 양도, 땅은 장기임대(문중땅이라 양도안됨)

010-3323-700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북구 신협~농협중간 상가,아파트 밀집 ● 건물 : 단독사용 2층 60평(옥상전체)주차장운영 ●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용왕, 소불200불, 법고大1, 小1 ● 종무행정실, 객실, 편백황토방, 명상힐링수련실 ● 시설 : 냉난방 및 실내외 주차장 보안시설 ● 교통 : 열차, 지하철, 버스, 공항(5~10분)거리 ● 전세 2천/30만 시설 답사후 절충(현재 법회중)

010-4535-2568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절앞에는 소나무숲 공원, 절옆에는 바닷가(해수욕장)가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 원만, 바닷가 앞까지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현시세는 평당1천2백만원
- 등기평수 33평, 실평수50평정도
- 가액 : 3억5천만원
- 양도 : 집기 일체 (즉시법회가능)

010-2104-171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 1580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약 1,200평
- 법당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공양간, 요사채, 창고,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9천 5백만원
- 부득이한사정

010-4628-5699

사찰및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칠원읍
- 법당 30평(주방, 해우소)
- 요사채 28평(방3, 주방, 해우소)
- 대지 115평, 임야 10평
- 가액 : 1억 6천

010-3906-3711

좋은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신도다수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10-4586-4525

◑ 입종 안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살아숨쉬는 생명의 돌"
희담석 방석[고급형] 수량 한정판매~!!!



정가 ~~198,000~~원 ➡ 할인판매가 120,000원
● 색상 : 살구색 ● 크기 : 450mm X 450mm
※베개겸용 휴대용케이스 증정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문의 : 1688-9099 (02-732-1520)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하나하나를 좀 더 넓게 보고 넓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물건들이 다 문이 되고, 또 부닥침이 다 문이 되지마는, 그래서 자기의 그 환경에 따라서 공부도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마는 근본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고 든다는 그 자체는 말입니다.

사람이 올바로 가다가도 잘못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단이 생기는 수가 있고 더딜 수가 있고요. 빠르다 하는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것이 천체가 한데 돌아가는 그런 이치는 못 되는 수가 많거든. 이것이 천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첫째, 둘이 아님을 알아서…. 그것을 사량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항상 말하죠. 인간의 육신이 탄생을 했으면 바로 마음 자체가 탄생을 해야 한다고요. 마음 자체가 탄생을 했다 하면 점차적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야 한다고. 그리고 또 자랐으면 거기에서 너와 나와 둘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둘이 아님을 알았으면 그때 가서 둘이 아니게 서로 나툴 줄 알아야 하고, 둘이 아니게 같이 한자리에서 결정을 지을 줄 알아야 하고, 또 결정을 지었으면 같이 한 점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한마음입니다. 이 뜻이 말로 할 때는 아주 얍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주를 굴릴 수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니 자재력이라 하는 것, 자동적이라 하는 것, 자동 용(用)이라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긴 하나 그 자동 용은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의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 법이 이렇다, 진리가 이렇다 하는 거는 이건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의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인간이 사는 걸 진리라고 하면서 '평등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평등 진리에서 살아나가는 데에 요모조모 살아나가고 요모조모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도리로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뿐만 아니라 진실로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주의 개발이라는 자체도 또는 세계적인 개발이라는 자체도, 즉 말하자면 하생의 진화력과 개발이라는 말도 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남 듣기 좋으라고 보통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린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억겁을 통해서 거쳐 나온 피 한 방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그 한 방울을 그냥, 그냥 넘길 수는 없죠. 이거는 너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진한 한 방울이기 때문에 그 한 방울이 진하게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게끔 되는 것이 인간의 참마음이며, 고독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것이 한데 합쳐진 아주 진한 피 한 방울이라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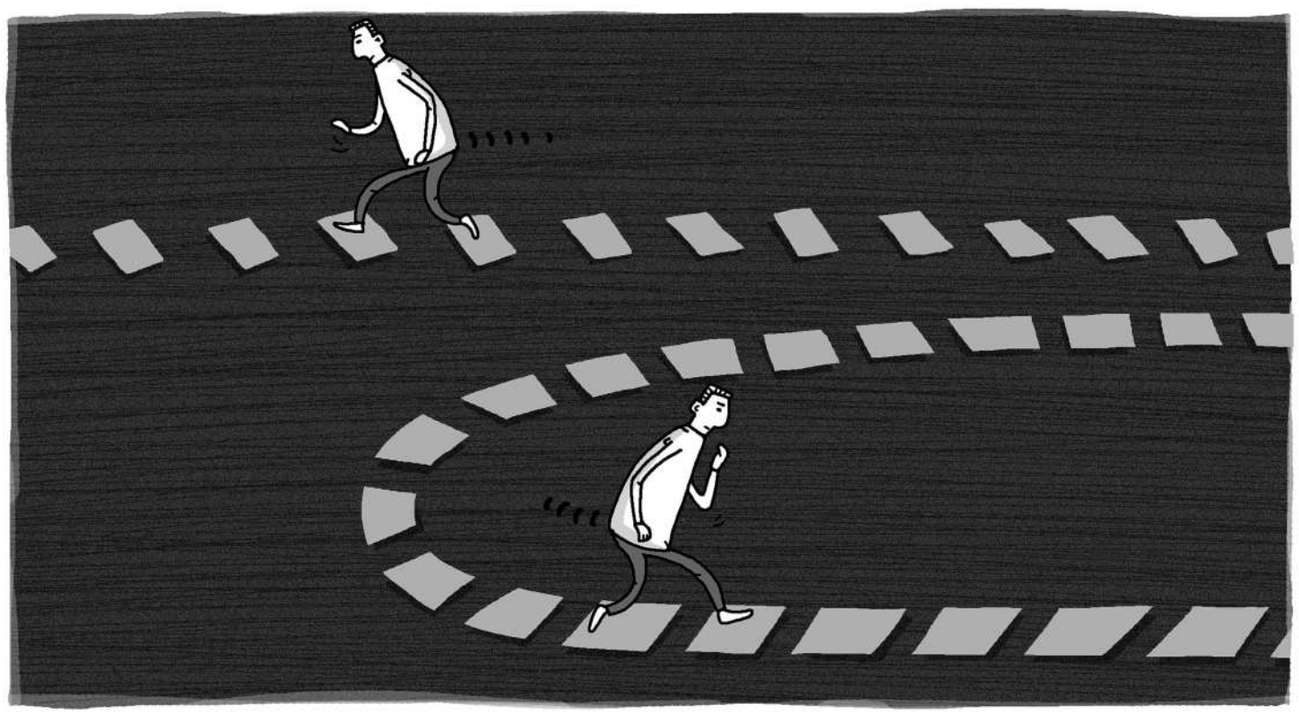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 진한 피 한 방울은 어디에도 속하게 되고 어디에고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동 용인 거죠. 한마음의 자동 용이라는 것은 내가 한다 네가 한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있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치를 알아냈고, 내가 있음으로써 그렇게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낼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위대하게 한마음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긴 하나, 그 한마음을 걷어잡고 작용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외국에서 수많은 좋은 기계를 한국에 갖다 놨다 해도 그 기계를 돌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리학이나 전체적인 그것을 내가 연구해서 다 안 사람이라야 어느 기계를 갖다 놔도 그걸 조금도 거침없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그 능력이 바로 자동 용이죠.

말을 하는데 콧구멍이 가려워요. 이 콧구멍이 가려운데 말이에요, 긁지 않고는 못 배기거든요. 그런데 이 콧구멍을 긁으면 속 콧구멍은 거꾸로 돼 있어서 말이에요, 이게 긁는 콧구멍은 바로 뚫렸다고 하나 그게 거꾸로 뚫린 거거든요. 그런데 둘 다 쓸모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한테 이것이 아니다, 기다 하는 그 습관성, 그 습을 다 놔라 하는 것은, 어떤 데고 환경에 따라서 조리 있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되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걸 떠나서, 고정관념으로서 그 습에 묻혀 있지 말고, 환경에 따라서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환경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 환경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응용해서 활용을 할 줄 알아야만이 '이거다, 저거다'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자유스럽게,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습성 없는, 고정됨이 없는 그런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전 우주의 그 자동적인 활용을 그대로 하면서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삶의 보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성이라는 혹성에도 습도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온도의 조절이라든가 가스의 조절이라든가 그런 모든 문제 등등을 한데 합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아니 생명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에너지로 변질되고야 만다는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거기에다가 한 역량,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말할 때 흔백이라고도 하고 씨라고도 합니다마는 그런 영식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 줄 수 있어야 하고 심어 주면 자랄 수 있는 역량의 바탕이 돼 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여러 모로 할 줄 알아야만이 우주의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우린 인간의 생명을 존엄성 있게 보호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먹여 살리고 서로서로 한마음으로서 살고 있다는 이 점을 예전부터도 항시 해 내려왔죠. 어저께도 잠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였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우주적인 개발과 세계적인 개발 또는 곤충에 이르기까지 개발을 원하고 있는, 이 전체 대천세계로부터 소천세계 중천세계가 한데 합쳐진 한 점의 근원이 이날까지 이렇게 성을 이루고 또는 분배를 해서 나누고 또 주워 담고 또 나누고 하면서 개발을 해서 인간의 형성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인간의 형성까지 올려놓은, 그 형성된 참된 인간으로서 아주 참되게 진미를 알고 사랑을 알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런 삶의 보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형성까지 이루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바라고 있는 우주적인 근본 하나의 그 뜻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라고 있는 그 한 점의 뜻이 우리를 이렇게 형성시켰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럼 한 점의 그 뜻은 거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우주와 더불어 같이, 어떠한 물질이든 어떠한 불성이든 다 똑같이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간에 그걸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여러분이 안팎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들어서 옮겨 놓을 수가 없고, 한번 생각할 수가 없고, 한번 굴릴 수가 없고, 한번 실천에 옮길 수가 없는 위치에서 이날까지 우리가 해 왔을 때에 전자에 공부하신, 선맥을 이어서 공부하신 대덕들과 더불어 인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거죠.

나는 한 점의 우주와 더불어, 즉 말하자면 대천세계와 더불어 하천세계까지 전부 합쳐진 한 점의 그 근원에 의해서, 나는 오관을 통해서 시대가 이러이러하니깐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내 줄 수 있다면, 서로가 합일점으로 돌아가면 그대로, 역량의 양식은 그대로 심어지는 거고 우주적으로도 개발이 되는 거고 세계적으로도 개발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젊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소릴 하는 것을 소리로만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실천에 옮겨졌을 때 '아! 그때 그이가 그렇게 말을 하더니 이게 말이 아니라 실천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서야 짐작을 하지, 지금은 '저이가 저런 설법을 하고 있구나!' 이거에 그치고 말 겁니다. 나는 그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이 뭐냐. 그 한마음의 뜻을,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자동 용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 피를 흘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공한 내 이 몸뚱이가 갈갈이 흩어져서 만약에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자존심이 꺾이는 일인지 모릅니다마는 우린 한마음의 뜻입니다. 너와 내가 따로 있는 한마음이 아니라 바로 같이 한자리의 한마음, 자동적으로 한 용이란 얘깁니다.

☞ 18면으로 계속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고정관념에 묻혀 있지 말고 환경에 따라 조절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 17면에서 계속

그럼으로써 이걸 최초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생각을 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살아가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왜? 살아나가는 데에 달라지고, 옛날에는 육신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그렇게 애를 쓰던 여러분이 지금은 아파트도 그렇고 살아나가는 데에 얼마나 여자들이 편리합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보다도 또 후일에 '아하! 그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하는 거를 또 새삼스럽게 몇 번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설계를 가지고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무루에서 유루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니돼. 그걸 비교하자면 여러분이 마음이 동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현실로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에서 유로, 유에서 우리가 개발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바로 무루에서 가질 수 있어야만이 유루의 현실의 환경에 따라서 조성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부터도 목숨을 그렇게 중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만약에 나같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아주 없어지고 그 눈물을 흘리지 말자고까지 다짐을 속으로 수년을 해오기도 했죠. 차라리 죄 없는 사람들이나 편안하게 살게끔, 그렇게 아픔을 느끼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그때는 나도 모르는 생각에서 그랬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진실한 마음만 있지 아주 몰랐었죠. 그런데 그런 모르는 생각이 있다면 왜 남을 탓하지 말고 또는 남이 잘 알고 못 알고 그것도 탓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모든 것은 내 탓이 아닐까요? 시대를 잘못 만난 것도 내 탓이요, 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단호히 이 한 방울의 짙은 것을 가지고서 그냥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시대를 못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뒷받침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그랬다는 걸 너무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석존으로부터 수많은 선종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이기도 했고, 그냥 스러져 간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몸뚱이는 스러져 갔으나 그 마음만이야 어찌 죽었겠습니까? 본래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본래 갈 곳도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나는 말입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혓바닥을 깨물고, 깨물어서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좋아.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이기도 했고 또는 그냥 몸이 변질돼서 스러져 가기도 했다. 그러나 그분들은 죽은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마음과 마음, 뜻을 한데 모아서 누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은 내 탓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탓인 관계상 나는 그대로 갈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 뜻을 누구나,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나쁘다든가 좋다든가 너는 모른다든가 그런 거 상관없이 말입니다.

나는 실천이 문제야! 나는 말 백 마디 천 마디보다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한 것을 한데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한마디를 만약에 거짓으로 아무렇게나 하기 좋은 말로 그냥 해 버리고 말아 치운다면, 자기가 아는 것이 바로 이 우주간 법계에서 천체가 알기 때문에 그건 거짓으로 돌릴 수가 없고 또 거짓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방울이 우주를 덮을 수도 있고 굴릴 수도 있고 들 수도 있다는 그 점에 의해서, 자동적인 용을 할 때에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조화를 시켜서 바로 한 점의 이 조화를 볼 때는 모두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저 산천초목과, 아니 이 한국만 보실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모두가 울창하고 거룩하게 생명들이 살고 있고, 울창한 숲과 울창한 물과 울창한 생명들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에서 사는 생명들이나 들에서 사는 생명들이나 산에서 사는 생명들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이 주워 먹고 사는 게 뭐가 우리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잡아먹고 사는 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고등동물이라고 해서 뭣이 그렇게 다른 게 있습니까?

나는 어떤 때는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도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영원히, 이 삶을 보람 있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계발되지 않는 이상, 마음을 터득하지 못하는 이상, 전체적인 마음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 모든 법칙에 따른 이 도리를 모른다면…. (녹음 안됨)

모두 살아나가는 거를 볼 때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광대하고 무변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리석고 큰 게 하나도 없고, 깔볼 게 하나도 없고, 어느 거 하나 깔볼 수가 없이 바로 너나 나나 이렇게 주워 먹어야만 살고 주워 먹어야만 움죽거릴 수 있다는 그 점을 생각했을 때 나는 항시 눈물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몇 식구가 살아나가는 데도 고달프다고 하고 또 거기에서 순간순간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순간순간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사시겠죠. 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전체를 봐 본다면 하나의 뜻도 가질 것도 없고, 산다는 욕망도 먹는다는 욕망도 입는다는 욕망도 아무것도, 생각이 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무엇을 더 가져야 하고 무엇을 더 먹어야 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또 남편들이 나가서 그런다 하더라도 이의가 없어, 나 같으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것에도 이의가 하나도 없고 자비로써만이 그저 묵묵히 펴 나갈 수 있는 그런 뜻을 갖는다면, 스스로 그 모두가 자비로워지고 스스로 영롱해지고 영리해지고 똑똑해지고 지혜롭게 펴 나갈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돼 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하나하나를 우리는 좀 더 넓게 보고 넓게 생각하고 세계를 좀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안방에 앉아서 세계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습니까? 지금은 좁은 시대가 아니라 넓은 시댑니다. 넓은 시대를 한 눈으로 바로 한 주먹에 쥐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묘하고 무변하고…, 뭐를 더 가져야 하는지 뭐를 덜 가져야 하는지 그것도 도대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 데다가 천체적인 우주와 더불어 같이 껴 있으니 너무나 이것은 광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본다면 대천세계의 큰, 우주 세계의 모든 것들 또는 이렇게 작은 우리 소우주의 모든 문제들이 큰 거 작은 거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깝고 먼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권을 가지고 큰 거 작은 거, 멀고 가깝고가 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없앨 수는 없지만 진리를 활용할 수는 있다는 얘깁니다.

언젠가도 이런 얘길 했죠. 이사를 가는데 어려운 집에서 덮을 것도 없이 가는 그런 이삿짐도 있었습니다. 이건 환경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있는 집은 다 덮기도 하고 비 안 맞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돈 들여서. 없는 집은 그 비를 맞아야만 하고, 또 비 안 오는 날 갈 수도 있건만 계제가 그렇게 못 되면 비오는 날도 할 수 없이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난 여러분 가정을 내 가정이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내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예도 없거니와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예도 없습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예도 없습니다. 그럴 때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내 살림이기 때문에, 내 삶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비가 정히 올 때는 주인공에다 맡겨서 비를 안 오게 하고서 가거라. 환경에 따라서 이거는 씀씀이를 자유스럽게 쓸 수 있다. 정히 급하걸랑은, 남들은 돈이 많아서 병원에도 가지만 가난해서 돈이 없어 병원에도 가지 못하걸랑은 주인공에다가 맡겨라. 맡겨서 위기를 모면하고 거기에 맡겨서 다, 죽든 살든 당신이 알아서 해 달라고 맡겨 놔라. 그런다면 너희 가정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날까지 일러 주고 나왔습니다.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찾아서
자기를 낳아 준 육신의 부모와 둘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법의 부모와 육신의 부모가 어찌 다르며 부처의 부모가 어찌 다르겠습니까.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누구든지 나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다면, 또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법도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나를 갖다가 구더기로 만들어 놔도 좋고 짓밟아서 아예 가루로 만들어 놔도 좋다고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난 이 가슴에서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피가 용솟음쳤으니까. 여러분도 이 뜻을 진실하게 알아서 여러분의 그 조상을, '여러분의 조상' 하면 자기 자신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자기가 형성시켜서 이날까지 끌고 오면서 진화시킨 자기 주인공을 그렇게 못 믿고 또는 배신하고 또는 그렇게 은공을 모른다면 당신네들은 육의 부모의 은공도 모를 거야. 진실한 당신 조상의 그 은혜를 모르면 당신 육신을 낳아 준 부모의 은공도 모를 거라는 소립니다.

나는 너무 사무치고 사무치고 또 사무쳐서 열 번, 백 번, 스무 번, 만 번 이 세상이 다 끝까지 돌고 또 돈다 하더라도, 부서지고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난 꼭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어디고 안 뛰어든 데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야! 인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는 할 수 없을 텐데 인간의 인정이 이렇게 메말랐을까? 인정 빼놓고 사랑 빼놓고 불법이 따로 있을까?' 차마 그 소린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진정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각각 보고 인정,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 '야, 참! 인간의 인정으로 그럴 수 없을 텐데도 어쩌면 이렇게 메말랐을까.' 하는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하게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눈 속에도 비 속에도 파묻히고 또 파묻혀서 수없이 거듭거듭, 죽은 것도 한두 번 죽은 게 아닙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수없이 죽음을 죽었고 또, 또, 또 죽고 쉴 새 없이 죽고 또 죽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작년의 여러분은 벌써 이미 죽었고, 마음이 또 달라진 겁니다. 마음이 탄생한 겁니다. 그것이 환경에 따라서 얼마만큼 크냐 작으냐의 문제지 똑같이 그렇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전에 말입니다, 가재가 두 다릴 들고선 무엇을 그렇게 주워 먹는지 주워 먹는 걸 봤습니다. 나는 학식도 많지 않거니와 책을 볼 수도 없고 하얀 거는 종이고 꺼먼 거는 글씨라는데 도대체 그걸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시체로 지금 흘러서 새 법이 나오고 새 용어가 나오고 시대가 바뀌지고 이래도 도대체,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지금 잘 배우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욕심내서 탐내겠습니까? 이 머저리 같은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함을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여러분이 내 스승이고 여러 풀들이 내 스승이고 물이 내 스승이고 돌들이 내 스승입니다. 그 스승들을 보고서 나는 터득을 한 것뿐이지, 글을 보고 터득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을 배우고 싶지도 않았고 또 글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쪼록 부모와 자기 조상의 은공을 모르지 말고, 자기 조상, 그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찾아서 자기를 낳아 준 육신의 부모도 바로 둘이 아니라는 것을 극히 아셔야 합니다. 내 법의 부모와 육신의 부모가 어디 다르며 부처의 부모가 어찌 다르겠습니까?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위약하게 보지 마세요. 나는 거듭거듭 수없이,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아프게 울면서 거듭거듭 피를 흘리면서 밟혀 가면서 이렇게 진화된 것입니다. 깊이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효도하십시오. 충성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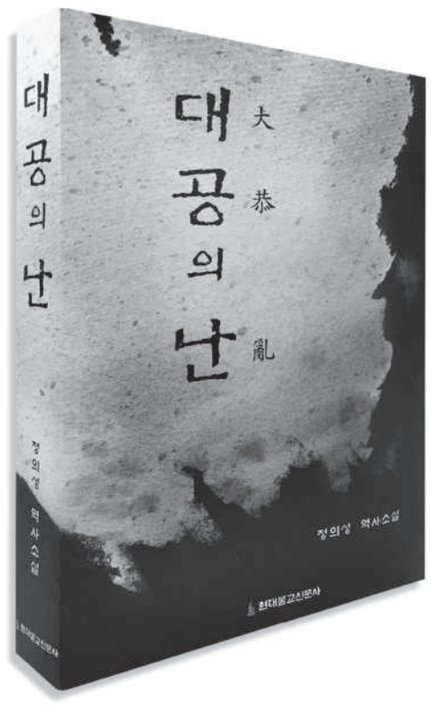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86년 4월 10일 일반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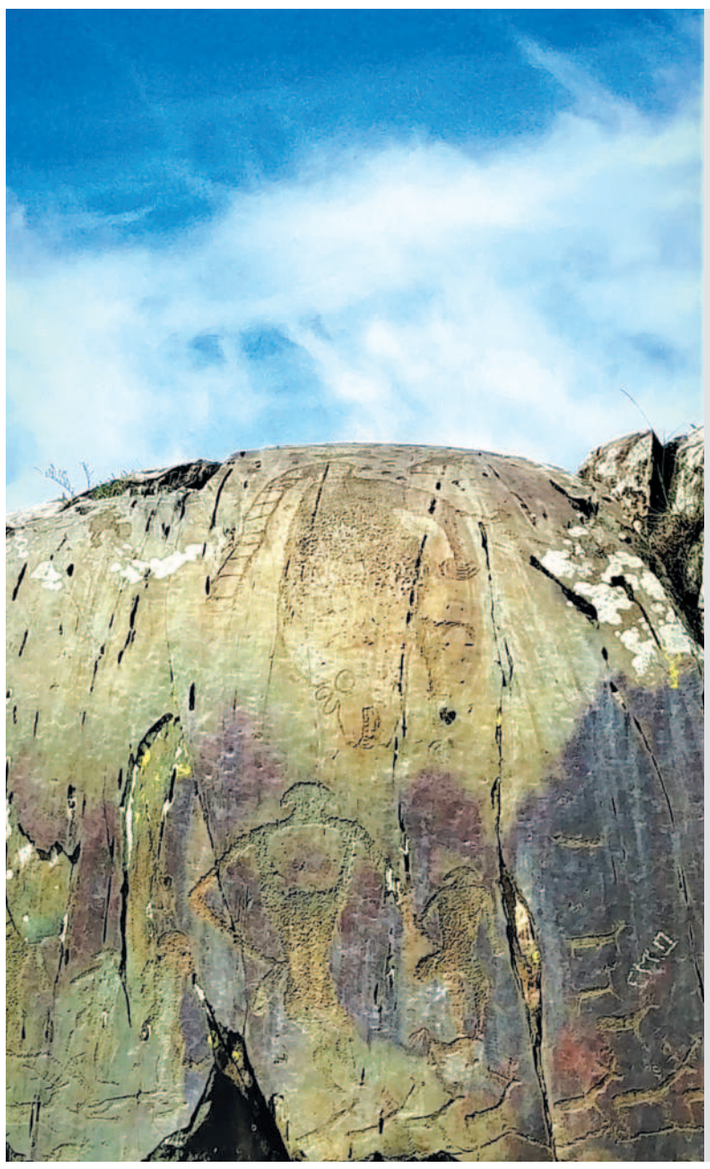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영웅의 전설



스스로 영웅이 있었다.
우리의 시작이 되어 주었다.

우리의 밥이 되어주고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다

우리의 눈물이고
사랑이 되어 주었다

우리의 방향이고
돌아갈 집이 되어 주었다

밤하늘의 별이 되고
전설이 되어 주었다

알타이, 깔박다쉬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깔박다쉬 유적의 중앙 제단(祭壇)에 있다. 제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곳에서 제기(祭器)로 쓰였을 법한 그릇들과 유물들이 몇 점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제단의 주인공은 전사(戰士)들이다. 신을 섬기는 제단에 남자들이 복수로 모셔져 있는 것은 매우 독특하다. 이들을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니, 적당히 전사(戰士)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무기를 손에 들지는 않았지만, 모자의 모양이나 우람한 체격으로 봤을 때, 전사(戰士)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소에는 사냥꾼이고, 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는, 전사라 불렸을 것이다.

그런데, 제단에 신을 모시지 않고 전사(戰士)를 모신 이유는 뭘까? 전사들이 신일까?

영웅(英雄)은 영웅담(英雄譚)이 있어야 한다. 이 암각화에도 영웅담이 있다. 전사들의 머리 위에 전사들을 곧, 덮칠 것 같은 맹수가 영웅담이다. 만약 이 맹수가 없었다면, 전사들의 위대함을 누가 알겠는가! 중앙은 크게 새기고, 주변은 작게 새겨서, 강약과 경중을 조절한, 그림 솜씨도 빼어나지만, 장수들에게 어울리는 맹수를 등장시켜, 그림의 긴장감과 완성도를 높인, 연출력도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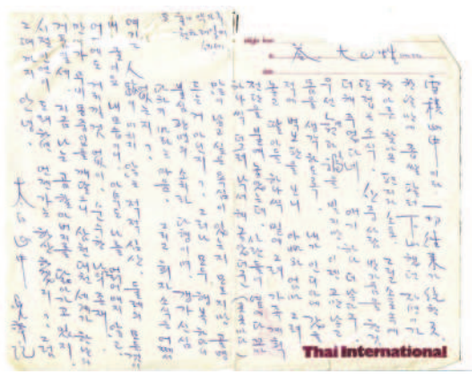
인생을 살다보면, 가끔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럴 때, 좌절하고 물러서지 말고, 지혜롭고 바르게 맞서서 싸우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어서, 후손들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라"는 선조들의 가르침으로, 이 암각화를 읽는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⑥ 일타 스님 2

"모두 행복하다니 불심광명 다행이네"



일타 스님 서신.

설적산중(雪積山中)이라 일체왕래(一切往來)가 절(絶)한 곳. 한 달 만에 좁쌀 팔러 下山했던 자명이가 한 아름 찾아 온 편지와 소포, 그리고 소포 속에 또 접은 소식, 산중 사람 반가움을 한껏 더해 주었다네. 애기 하나 더 낳았다고? 우선 명과 복을 빌지만 이젠 고만 낳고 몸을 생각하도록. 내가 인디아에 갔을 적에 벽보판을 보니 아빠와 엄마 그려놓고 딸 아들 하나씩 밑에 그려 가족계획 전단을 붙여 놓았는데 사람들이 옆에다 꼬마 하나씩 더 그려 낙서 해 놓았더군. 곳곳마다 많이 낳고 싶은 욕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골병드는 거 아닌지? 그러나 모두 행복하다니 불심광명의 소치라 다행이며 갱가신심 다하기 바라는 마음. 희자 소식은 어째서 없는지? 여기는 人跡(인적)이 미치지 않는 적적 심산. 둘레의 모든 것이 내 얼굴이요 내 모습이니 아무도 나를 얽매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거리낄 것 없이 순수한 나의 존재. 만사가 무비몽중임을 깨달으니 삼천대천세계가 한 낫 거품일세.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언젠가는 하산하겠지. 그럼 그때까지 안녕.

태백산중 도솔암에서

일타 스님이 경북 태백산 도솔암에서 상좌 자명 스님과 생식 수행으로 정진하실 때 율무를 보내드린 적이 있다. 율무를 받으시고 답으로 보내신 서신이다. 몇 줄 안 되는 서신에서 친정아버지 같은 마음을 느꼈다. 평소 늘 그랬지만 염려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마음이 내겐 늘 '아버지' 였다. 이 서신을 받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일타 스님은 평소에 도솔암을 고향처럼 그리며 언제가 한 번은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셨다. 마침내 그곳에서 수행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 번 가보고 싶어졌다. 나는 연꽃모임 도반들과 도솔암에 가기로 했다. 나는 떠나기 전 날 밤늦게까지 일타 스님께 드릴 김치와 일행 28명의 도시락을 준비했다.

도솔암은 쉬운 나들이가 아니었다. 얼마나 먼 길인지도 생각해보지 않고 무작정 떠난 길이었다. 산 밑에서 일타 스님과 상좌스님을 만나 걷기 시작했는데 길은 거친 바위와 자갈뿐인 힘든 길이었다. 날은 어두워졌고 우리는 일타 스님이 가지고 계신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산행을 이어갔다. 커다란 김치통을 들고 낑낑거리는 내 모습을 보신 스님이 김치통을 스님 걸망에 옮겨지셨다. 스님과 우리 일행은 새벽 2시가 다 되어서 도솔암에 도착했다. 정말 힘든 길이었다. 갑자기 하늘이 뻥 뚫리고 환한 달이 나왔다. 도솔암이었다. 법당과 작은 방 하나가 전부였다. 모두 앉아있기에도 좁았다. 우리는 각자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고 밤을 보냈다. 하지만 어려운 길 끝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 지금도 그때 일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때 일이 더욱 깊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일 때문이다. 나와 도반들은 다음날 하산때 스님들이 생식수행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 밀가루와 솔잎 등 생식만 하신다는 것이었다. 힘들게 지고 올라간 김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런 김치를 힘들게 지고 올라가신 스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마음이 짠하다. 나는 도솔암에서 돌아온 후 율무를 보내드렸고, 율무를 받아보신 스님도 아마 그날을 생각하시며 서신을 보내신 듯하다.



1968년 범어사 보살계 수지. 일타 스님(중앙)과 대원성보살(우측).

BTN 붓다회

dreaminus 아름다운동행

『코로나19』
다함께 이겨냅시다!



dreaminus 아름다운동행 · BTN 붓다회 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이웃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827-01-0332-638 불교텔레비전(주)
후원문의 1855-0108 / www.btn.co.kr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B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케이블문의:02)3270-3300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현대불교 마하몰 02)732-1520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